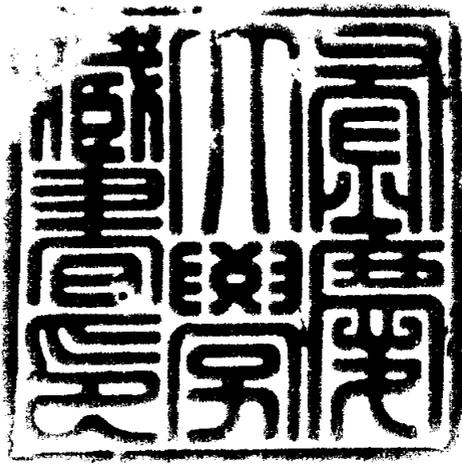


文學碩士學位論文

朝鮮 後期 通信使 員役의 差定과 變化

指導教授 朴花珍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8월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沈玟廷

沈玟廷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4년 8월

主 審 文學博士 李 根 雨



委 員 文學博士 朴 花 珍



委 員 文學博士 申 明 鎬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使行 構成員과 職務	6
1. 三使·上上官	8
2. 上官	11
3. 次官	15
4. 中官	17
5. 下官	22
III. 使行 員役의 差定	25
1. 三使의 自辟	27
2. 該司의 差定	31
3. 監營別 差定	64
4. 使行 中 差定	78
IV. 構成의 變化	83
1. 交隣體制 回復期(1607~1624년 사행)	84
2. 交隣體制 整備期(1636~1655년 사행)	87
3. 交隣體制 安定期(1682~1763년 사행)	89
4. 交隣體制 衰退期(1811년 사행)	91
V. 결론	93

표 목 차

〈표 1〉 上上官의 명칭과 인원수	9
〈표 2〉 上官의 명칭과 인원수	11
〈표 3〉 次官 명칭과 인원수	16
〈표 4〉 中官 중 상상관이 거느린 원역수	18
〈표 5〉 水軍업무를 담당한 中官	19
〈표 6〉 中官 명칭과 인원수	21
〈표 7〉 下官 명칭과 인원수	24
〈표 8〉 전체 員役 差定	25
〈표 9〉 通信使 使行時의 應行諸事와 一行 員役人數	31
〈표 10〉 通信使 一行 員役의 官職과 姓名	32
〈표 11〉 通信使 隨行譯官 選拔基準	34
〈표 12〉 製述官 명칭 변화	39
〈표 13〉 통신사행 製述官 일람표	41
〈표 14〉 통신사행 寫字官 일람표	43
〈표 15〉 통신사행 醫員 일람표	46
〈표 16〉 통신사행 書員 일람표	50
〈표 17〉 통신사행 書記 일람표	55
〈표 18〉 통신사행 별과진 일람표	56
〈표 19〉 통신사행 馬上才 일람표	58
〈표 20〉 통신사행 典樂 일람표	60
〈표 21〉 통신사행 理馬 일람표	63
〈표 22〉 使令의 출신지	70
〈표 23〉 鼓吹樂手의 출신지	72
〈표 24〉 節鉞·기패관의 출신지	73
〈표 25〉 格軍의 출신지	76
〈표 26〉 통신사행 先來軍官 및 譯官	79
〈표 27〉 통신사 시기구분	83

A Study of Organization to Change in the Deligation to Japan(通信使)
in Later Chosun

Min Jung Shim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envoys was dispatched to various parts of East Asia during the South Korean medieval and modern times, envoy especially dispatched to Japan for the purpose of truthful and harmoni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s called Tongshinsa(通信使). Being looked though the scale, it turns out that Tongshinsa is very important, but an envoy's name or character are not specified correctly yet. Although there are some researches about a Jeshulgwan(製述官), an interpreter, and a drawing member, they have only focused on the role of some officials, which makes the understanding of overall unstituency difficult. In this paper, the composition, selection, and the process of alteration of members in Tongshinsa are examined.

The member is roughly classified by five grades of a very best official(上上官), a superior(上官), a vice-minister(次官), an inside official(中官), and a bottom official(下官) according to the role in the entertainment to Japanese people.

The constituents who were classified like this were extracted by two sources : from the related post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It extracted people who were in a special duty among the constituent of relevance, or exceedly talented in its central post, but it also extracted people such as a captain who promoted for using

a vessel locally, and those standard-bearers required for an army procession as well as for a band. Some of the unstituent were elected directly by representatives. It was a principle to extract a constituent before the departure of envoy for Japan, but when a proxy person, an interpreter, and an army official were extracted, they were chosen exceptionally on the mission of envoy. These people can be said that they are people chosen for the special duty on the mission of envoy.

Although it is said that member were selected by the same method through the top, the composition and the number of staffs were not completely constant. Change of composition is divided by restoration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交隣體制 回復期) and maintenance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交隣體制 整備期), stability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交隣體制 安定期), and decline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 (交隣體制 衰退期). Restoration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 was that formal Tongshinsa had some differences as for the composition since dispatch of an envoy was not stable and suited to return of prisoner-of-war. A maintenance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 was the time that change of composition was made by Day Mitsuyama 致祭(日光山致祭), a Dogchugguan(讀祝官) and Soogsu(熟手) were dispatched with the special job at this time. The stability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 was that before there was change in the dispatch area of Tongshinsa, the atmosphere of active cultural exchanges would be felt through the people participated in envoy. Since the large reduction of constituent as well as the area to which envoy was dispatched were realized at the decline term of a good-neighbor organization, it became impossible to extend the scene of the active cultural exchanges performed in Japan before.

The detailed study about selection of the constituent not treated minutely here is desired to be another subject compensated with more historical sources.

I. 서론

韓國 中世와 近世에 이르는 기간에 동아시아 각지에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交隣과 信義를 통한다는 명목으로 파견된 사신을 通信使라 한다. 통신사는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가면서 國書 傳達者로서, 文化 傳播者로서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하지만 使節의 명칭이나 성격이 아직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고, 국내에서의 연구 성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논문 편수가 일본의 1/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 일본에서의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그 명칭이 通信使가 아닌 朝鮮通信使²⁾로 불리기도 했다.

1428년 통신사 朴瑞生이하 사신들이 파견되면서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시기의 《世宗實錄》에서는 ‘信義’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³⁾ 그러한 가치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후 1443년 癸亥約條 체결과 함께 통신사는 교린체제의 신의라는 개념 속에서 그 의미를 완성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통신사의 개념을 ‘조선 시대의 교린체제 속에서 信義에 바탕을 두고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란 뜻으로 통칭하고 있다.

-
- 1) 孫承喆,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
 - 2) 朝鮮通信使란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通信使란 뜻이다. 사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朝鮮王朝實錄》이나, 《通信使臚錄》, 《備邊司臚錄》 등 어디에서도 ‘朝鮮通信使’란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사료에서는 ‘通信使’나 ‘信使’ 혹은 ‘日本通信使’로 나올 뿐이다. 통신사의 명칭에 관한 연구는, ‘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 개념의 재검토〉, 《朝鮮時代史學會》, 2003.’에 자세히 나와 있다.
 - 3) 《世宗實錄》, 권42, 10년 12월 갑신.

1428년 이후 통신의 개념을 가지고 파견된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절을 의미한다. 첫째, 조선 국왕으로부터 일본 국왕(幕府將軍)에게 파견된다. 둘째, 일본 국왕의 기씨 또는 兩國 간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갖는다. 셋째, 조선 국왕이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國書와 禮單을 지참한다. 넷째, 사절단은 중앙의 고위 관리인 三使 이하로 편성한다. 다섯째, 國王使도 칭호를 갖는다.⁴⁾

조선 전기에 통신사란 명칭으로 막부 장군에게 간 것은 총 8회인데,⁵⁾ 임진왜란으로 인해 한동안 단절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후 1604년 江戶로 探賊使의 파견이 있고 난 뒤 1607년 上使 呂祐吉을 중심으로 回答兼 刷還使가 파견된다. 조선 후기 통신사의 시작은 대부분 이 시기를 처음으로 잡을 수 있다. 회답겸쇄환사라는 명칭과 그 성격에서 통신사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통신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신사 파견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將軍襲職의 축하'였지만, 내용상으로는 각 시기마다 다른 정치·사회적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초기 3차례의 회답겸쇄환사를 통신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통신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政治⁶⁾·外交⁷⁾·認識⁸⁾·文學⁹⁾ 등의

4) 三宅英利,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1996.

5) 1428년, 1439년, 1443년, 1460년, 1475년, 1479년, 1590년, 1596년의 8차례이다. 그러나 1460년, 1475년, 1590년 사행은 국내 혹은 일본의 사정으로 실행되지 못했고, 실제로는 5차례만 시행되었다.

6) 金文子, 〈島井宗憲과 1590년 통신사 파견문제에 대해서〉 《상명사학》 2, 1994; 全海宗, 〈壬亂後의 대일관계〉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孫承喆, 〈조선후기 脫中華의 交隣體制의 독립성과 허구성〉 《국사관논총》 57, 1994; 河宇鳳,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사절왕래를 중심으로〉 《동양학》 27-1,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1991; 洪性德, 〈통신사는 신의의 상징인가 조공의 상징인가〉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998.

7) 이민호, 〈壬亂과 한·중·일의 외교관계〉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소,

면에 치우쳐서 이루어졌고, 文化면에서도 현재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지만, 초기 연구는 통신사가 단순히 일본으로 문화를 전파해주었다는 ‘自文化中心’적인 것이었다. 한국에서 2000년까지 진행된 통신사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보면, 전체 120여 편의 논문 가운데, 政治制度가 30여 건으로 25%를 차지하고, 相互認識과 文學에 관한 것이 각각 20%, 그리고 文化交流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服飾·飲食·記錄·外交體制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⁰⁾

- 1993; 이민호, 〈孝宗朝의 대일외교〉 《동서사학》 4, 1998; 洪性德, 〈17세기 한일 외교사행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8; 洪性德,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 研究〉 《국사관논총》 93, 2000.
- 8) 金文植,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대일인식〉,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02; 배수영, 〈趙巖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李成厚, 〈조엄과 김인겸의 대일관 연구〉, 《금오공대 논문집》 7, 금오공과대학, 1986; 李元植, 〈통신使記錄을 통해 본 대일본인식〉, 《國史館論叢》 76, 1997; 이재원, 〈18세기 일본지식인의 조선인식에 관한 일고찰: 雨森芳洲와 新井白石의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5; 林榮澤, 〈개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 1994년 가을호, 1994; 鄭章植,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鄭章植, 〈癸未(1643년) 通信使行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 10,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河宇鳳, 〈朝鮮初期對日本使臣의 日本認識〉, 《코리아나》 4-1, 1991; 황창윤, 〈조선통신사인식에 대한 재검토〉,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성진, 〈조선후기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관연구〉, 《陶南學報》, 1996; 김성진,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문학인식〉, 《韓國文學論叢》 18, 1996; 金泰俊, 〈18세기 한일문학교류의 양상: 江關筆談을 중심으로〉, 《논문집》, 숭실대학교, 1988; 朴昌基, 〈조선시대 통신사와 일본의 文壇-1711년 使行時 林家 및 木下順庵門과의 交流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3, 한국일본학회, 1989; 朴昌基, 〈조선시대 통신사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문학교류-1711년 사행시의 교류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7, 한국일본학회, 1991; 李慧淳, 〈17세기 통신사행집단의 문학과 의식세계-남용익의 〈壯遊〉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7, 1994; 韓泰文, 〈조선후기 通信使 使行文學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10, 1996; 韓泰文, 〈[해행총재] 소개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韓泰文, 〈17세기 通信使사행문학의 전개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논총》 57,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1.
- 10) 이것은 ‘張舜順,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2’ 에 있는 ‘한국에서의 통신사연구 현황’ 이라는 표를 참고하였다. 이 외에 ‘孫承喆,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 에도 통신사 연구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통신사 員役¹¹⁾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주 부진한 실정이다. 일반 잡직으로서의 譯官¹²⁾· 書員¹³⁾· 醫員¹⁴⁾ 등에 관한 논문이 몇 편 있으나, 그것은 당시 이 잡직의 신분이나, 국내에서의 활동 양상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통신사와 관련짓기보다 조선 시대의 관직 연구 속에서 부수적으로 규명되었다.

통신사 수행 원역에 관한 세부적 연구로서는 製述官이 書記에서 讀祝官을 거쳐 製述官이라는 명칭으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을 밝힌 張舜順의 연구¹⁵⁾, 그리고 제술관과 서기의 문학세계를 그린 김경숙의 연구¹⁶⁾가 있다. 또 역관 중에서도 통신사 수행 倭學譯官을 연구한 金瑞蘭¹⁷⁾, 통신사 수행 書員의 파견과 그 활동을 연구한 홍선표의 연구¹⁸⁾가 있을 뿐이다. 즉 이제까지 통신사행 원역의 부분적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구성원 전체에 대

- 11) 員은 관직에 있는 관리를 말하며, 役은 남에게 사역을 당하는 사람 혹은 일에 동원된 백성을 말한다.
- 12) 姜信沆, 〈韓日兩國 譯官에 대한 비교 연구〉, 《인문과학》 2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全允珠, 〈朝鮮後期 譯官의 身分과 그 役割〉,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一煥, 〈조선후기 역관의 여행과 체험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백옥경, 〈朝鮮 前期 譯官의 充員에 대한 考察〉, 《조선시대사학보》, 2003; 이상규, 〈17-18세기 東萊府에 파견된 倭學譯官의 기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8; 1993; 鄭光, 〈司譯院 倭學 研究〉,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13) 김지영, 〈18세기 圖畫書 畫員의 활동과 畫員畫의 변화〉,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박정준, 〈조선시대 도화서와 화원의 신분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동숙, 〈조선시대 후기 도화서 화원 연구〉,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4) 김양수,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 진출〉, 《東方學志》 104, 1999.
- 15)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1990.
- 16) 김경숙, 〈18세기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문학세계:서얼의 신분과 문학관을 통해〉, 《溫知論叢》, 1995.
- 17) 金瑞蘭, 〈조선후기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 18) 홍선표,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1995;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1998.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부 구성원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여 그들의 성격을 밝히기 힘든 면이 있다.

이제껏 통신사 연구의 사료로 이용된 것은 사행시 기행기록을 묶어 놓은 《海行摠裁》, 외교 기록서인 《增正交隣志》·《通文官志》,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이나 《備邊司啓錄》, 《通信使啓錄》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사료에도 원역의 세부 활동 내역을 기록한 것은 없다. 원역 중 역관 관련 내용은 外交書 撰者의 성격상 세세하게 밝힌 편이지만 대부분의 원역은 그 구성이나 인원수 등만 제시해 놓았고, 자세한 차출 규정이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통신사 구성원이라는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신사행 원역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구성원의 명칭과 직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여기서 원역의 구분은 《春官志》·《통문관지》·《증정교린지》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당시 일본에서 접대를 위해 구분하였던 다섯 등급의 구분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각 구성원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差出되어 選定되기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IV장에서는 시기별 구성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함께 되짚어 볼 것이다.

사실 드러난 일부 원역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자세하지만, 하부 원역 중 일부는 差定¹⁹⁾이나 성격규명에 필요한 사료가 부족하여 세부적으로 밝히기 힘든 면이 있다. 이것은 개괄적인 모습으로나마 만족해야 할 것이다.

19) 差는 택한다는 뜻으로 差任하는 것을 의미하여, 차정은 관리를 擇定·임명한다는 뜻으로 쓰여졌다.(《經國大典註解》 77.)

II. 使行 構成員과 職務

通信使行에서는 400여 명 내지 5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들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사행활동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역관들과 서계전달시 서계를 읽고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製述官·書記, 그리고 일본 측의 요구나 조선 측의 과시를 위한 才人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관계로 배를 부리는 이들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水軍이라는 명목으로 구성하였다.

통신사 원역에 관련된 것은 조선조에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면 얻을 수 있다.²⁰⁾ 외교관계 저서²¹⁾나 각종 등록류²²⁾, 사행록²³⁾들은 통신사에 대한 규정이나 실제적인 내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역에 관해 대체적으로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通文館志》²⁴⁾, 《春官志》²⁵⁾, 《增正交隣志》를 중심으로 해서(이후로 이 저

20) ‘하우봉, <『增正交隣志』의 사료적 성격>’에 개략적인 사례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21) 《海東諸國紀》, 《攷事撮要》, 《通文館志》, 《春官志》, 《交隣志》, 《邊例集要》, 《同文彙考》 등이 있다.

22) 謄錄類 중 통신사에 관련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典客司別謄錄』, 『通信使謄錄』, 『通信使往回時 廣州府板橋站舉行謄錄』, 『通信使草謄錄』 등이 있다.

23) 通信使의 使行錄들은 《海行摠載》로 묶어서 국역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하우봉의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 《歷史學報》112, 1986’에는 새로 발견된 사행록 목록이 추가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24) 『통문관지』에 관한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田川孝三, <通文館志의 編纂と重刊について>, 《朝鮮學報》4, 1953’, ‘金鍾圓, <通文館志의 編纂과 重刊에 대하여>, 《歷史學報》26, 1965’, ‘金奎聲, <通文館志 解題>, 《通文館志》, 경인문화사, 1972’에 대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다.

25) 『춘관지』는 ‘서문’이 없어 편찬자와 편찬연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조

서들을 ‘세 외교저서’로 통칭한다) 그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하지만 이 저서들은 규정집인 관계로 실제 사행에서는 변수가 많았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통문관지》는 1708년에 편찬되어서 1682년 사행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고, 《춘관지》는 저자인 李孟休의 生死年代로 추정해 볼 때 그 중간 썸의 기간이 될 것이며, 사행내용도 1719년까지 기록하고 있다. 《증정교린지》는 1802년에 편찬되어 그 이후 1865년에 증보판이 만들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각 저서별로 시기적인 규정의 차이점도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 원역은 위의 세 외교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三使를 제외하고 크게 ‘上上官·上官·次官·中官·下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본인들이 사행 원역들의 접대를 위한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²⁶⁾ 그래서 실제 원역들 노고의 다소와 맞지 않게 구분된 경우도 있어 조선에서 그 加料를 달리 분배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⁷⁾

조선에서의 원역은 사행시 운행되는 배, 즉 騎船 3척과 卜船 3척에 따라 구성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던 듯 하다. 申遊翰의 《海遊錄》에서 저자는 자신이 전례에 의해 正使의 배로 들어갔다고 하고 있으며²⁸⁾, 앞서 언급한 세 외교저서에도 사행원역에 대한 설명에 ‘三使臣이 몇 명,……, 堂上이 몇 명을 거느린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접대 및 숙박의 기준은 모두 앞의 5등급으로 이루어졌다.

대에 禮曹 正郎을 지냈던 李孟休(1713-1751)가 편찬하였음이 그의 아버지 李瀾의 저작인 『星湖僿說』과 동료였던 安鼎福의 문집에서 확인되었다.

26)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27) ‘都訓導卜船將은 맑은 바가 긴요한데 中官의 열에 들었고, 及唱은 밤낮 노고하는데 下官의 줄에 두어졌으므로 전부터 혹 別料를 주었다하므로, 세 사신이 상의하고 이 사람들에게 加料를 분배했다.’ (趙曦, 《海槎日記》, 계미년(1763) 12월 15일 丁酉)

28) 申維翰, 《海遊錄》, 1711년 5월 18일.

앞의 세 외교저서에서는 사행원역의 구성을 나열해 놓았고, 차정할 때 처럼 특별한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들 구성원의 인원수와 성명·직책 등은 일본에서 접대를 요구하면서 미리 명단으로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내용도 세부 직무를 밝히기보다 인원수 정도만 밝히고 있다.

이 장에서도 구성원의 인원수와 직무를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세 외교저서에서 구분해 놓은 방식을 따라 상상관과 상관·차관·중관·하관의 5등급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三使·上上官

三使²⁹⁾은 3척의 騎船과 3척의 卜船을 관리하며, 사행에서 가장 대표되는 인물들이었다. 그 중 정사는 文官堂上, 부사는 文官堂下官 正三品이었으며, 종사관은 文官 五·六品이었다.

당상역관은 倭學 教誨로 선발하였으며²⁹⁾, 역관들의 총책임자인 동시에 도주나 관백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소통하고 書契 및 禮單을 전달해 주는 임무를 띠었으므로 그 위치가 중요하였다.³⁰⁾ 외국 사신 행차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소통이 중요하였으므로 역관들의 역할이 컸고, 그 중 역관의 수장격인 당상역관의 위치가 특히 중요하여 상상관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들의 직무나 역할만으로 일본인들이 상상관이란 칭호로 부르

29) 《동문관지》, 《춘관지》, 《증정교린지》에 공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30) 金瑞蘭, 〈조선후기 통신사수행 왜학역관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p. 2.

게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趙曦의 《海槎日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예전에 의성이 그의 부관 평조흥과 불화하였는데, 조흥이 의성을 관백에게 상소하기를(중략)..... 늙은 장소 정종이 크게 말하기를,(중략)..... 인하여 조흥의 참소하고 모함한 죄를 열거하니, 관백이 조선의 사정을 탐지하려고 하여 마상재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청하였다. 그때 수역 흥희남(洪喜男)이 인솔하고 들어갔는데, 의성과 조흥이 모두 관백에게 좋게 말하여 줄 것을 각기 서로 희남에게 부탁하므로 희남은 겉으로는 조흥을 위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의성을 두둔하니, 관백이 도리어 조흥이 조선에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드디어 조흥을 귀양보내고 의성을 세웠다.

이로부터 평씨가 대대로 그 관직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대마도에서 우리 나라의 일처리를 마음으로 복종하고, 희남의 임기응변을 성심으로 감탄하여, 통신사의 행차를 접대함이 지극히 넉넉하고 후하며 공순하고 정성스러웠다. 그런데 수역을 상상관이라고 일컬음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³¹⁾

즉, 洪喜男의 임기응변으로 관백이 그의 성심을 믿음으로써 이후에 상상관이라는 칭호와 접대를 얻게 된 것이다. 이상 상상관 구성을 세 외교저서를 중심으로 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上上官의 명칭과 인원수

통문관지		준관지		증정고린지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使	1원	上使	1원	正使	1원
副使	1원	副使	1원	副使	1원
從事官	1원	從事官	1원	從事官	1원
堂上官	2원	堂上譯官	3원	堂上	3원

※ 각 저서에서 나타나는 명칭이나 인원수로 볼 때 그 차이점은 음영으로 표시.

31) 趙曦, 《海槎日記》, 계미년(1763) 10월 28일.

우선 세 사신 중 壬辰倭亂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변화가 나타나는 명칭은 종사관이다. 원래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종사관의 명칭이 ‘書狀官’³²⁾이었으나, 丙午年에 回答使가 가게 되자, 조정의논이 사신의 칭호를 고쳐 ‘從事官’이라고 했다.³³⁾ 즉, 1607년 사신의 칭호가 통신사 아닌 회답겸쇄환사였으므로, 서장관도 칭호를 종사관으로 고쳤던 것인데, 1636년 정식 통신사로 칭호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관 칭호는 다시 고치지 않았다. 아마도 1643년 이후에는 書記가 삼사 소속별로 별도로 파견되었으므로 원래 기록과 보고의 역할을 담당했던 ‘서장관’의 명칭이 없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1588년(선조 21) 사행에서는 許箴이 서장관이었으나, 임진왜란 후의 回答兼刷還使인 丁好寬의 관직명이 종사관인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삼사 중의 최고 사신인 正使는 각각 使·上使·正使 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명칭이 바뀌었다기 보다 최고 사신을 칭하는 방법이 여러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위의 세 저서에서뿐만 아니라, 《通信使曆錄》이나 사행록들에서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상역관의 명칭이 堂上이나 堂上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예이다.

다음은 堂上譯官의 수인데, 《통문관지》에서만 2員이라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 수가 다른 원인은 각 저서마다 간략하게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는 2원이었으나 肅宗 8년 임술(1682)에 倭人이 한 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관례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使行이 국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한 자가 제일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요구로 당상역관 1원을 늘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수가 부족하여 康熙 庚寅年(肅宗 36, 1710)에는 差倭³⁴⁾가 와서 인원을 더 늘려 줄 것을 요청하기도

32) 서장관은 기록관을 말한다. 정부사보다 지위는 낮았으나 行臺御史를 겸하였다.

33) 《春官志》下.

하였다.

이상 삼사신은 사행시 대표로서, 상상관은 역관의 수장 격으로서 사행에서 책임이 막중했다.

2. 上官

상관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이들은 대부분 詩·書·畫·武藝에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행 중 도주나 관백의 요청에 의해 그 기예를 뽑내는 경우가 많았다. 즉, 譯官인 上通事·次上通事·押物通事를 제외하면 모두 기예에 뛰어난 자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上官의 명칭과 인원수

등문관지		준관지		증정교린지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上通事	3원	上通事	3원	上通事	3원
製述官	1원	製述官	1원	製述官	1원
良醫	1원	良醫	1원	良醫	1원
次上通事	2원	次上通事	2원	次上通事	2원
押物官	3원	押物通事	4원	押物官	4원
寫字官	2원	寫字官	2원	寫字官	2원
醫員	2원			醫員	2원
		書員	1원	書員	1원
子弟軍官	5원	子弟軍官	5원	子弟軍官	5원
軍官	12원	軍官	12원	軍官	12원
書記	3원	書記	3원	書記	3원
別破陣	2인	別破陣	2인	別破陣	2인

34) 조선 후기 朝日 양국 간에 외교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마도에서 파견한 일본 사절.

※ 각 저서에서 나타나는 명칭이나 인원수로 볼 때 그 차이점은 음영으로 표시.

상관 중 역관은 상통사·차상통사·압물통사인데, 상통사와 압물통사는 인원수 중 한명을 漢學譯官으로 했다. 일본 사행이라 해도 무역에 관계된 일이나 중국 표류민에 관련된 사항은 한학 통역인이 필요하였으므로 그러한 듯 하다. 1636년 사행시 金世濂은, 자신이 福建사람이라 하며 찾아온 자와 대화하기 위해 漢語譯官 皮得忱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³⁵⁾ 이러한 목적에서 한어역관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들 세 역관은 대부분 通事나 譯官이라 불렸으며, 압물통사는 복선의 물건들을 관리하는 직무가 더 크게 작용하여³⁶⁾ 押物官으로 불리기도 했다.

나머지 사행원의 구성과 직무는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합천 원이 사행의 일을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른 나라에 가면서 전대(專對:전권을 가지고 교섭하는 것)하는 것이 원래 처리하기 어려운 사단이 많은 것이지만, 지금 일행으로써 말하면 원역으로부터 격군에 이르기까지 거의 5백인에 가깝소. 그런데, 그 중에는 무용이 이름난 군관도 있고 자제군관도 있으며 장사군관도 있어, 같은 막료 중 이 3가지 색으로 나뉘어지고 또 제술관도 있고, 서기도 있어 문사 중에도 또한 두 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지고, 왜역과 한역이 있어, 역관 중에도 두 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지고, 또 의관도 있고 사자관도 있으며, 화원도 있고, …… (중략) …… 명색이 이와 같이 많은 중에도 각기 어느어느 색으로 나뉘어 세 사신의 방에 갈라서 소속되었소.³⁷⁾

제술관과 사자관·서기는 글씨와 문장에 능한 이들로 구성하여, 처음에는 서계전달이나 기록 등에 관련되었을지라도 후기로 갈수록 기예를 뽑내

35) 金世濂, 《海槎錄》, 병자년(1636) 12월 1일.

36) 《英祖實錄》, 권67 24년 3월 2일 조에 보면, 사행 때 통신사의 배에 불이 나서 예단을 태운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삼사신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압물역관에게만 책임을 물어 추고했던 일이 나온다.

37) 趙職, 《海槎日記》, 계미년(1763) 9월 4일.

는 방향으로 나아가, 일본 측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였다. 이는 講員이나 良醫·軍官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화원은 일본의 문물이나 제도를 그림으로 담아오는 목적,³⁸⁾ 군관은 당시 일본의 무기나 군체계를 정탐하는 목적,³⁹⁾ 의원은 원역들의 치료와 異國의 약재를 알아온다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도주나 관백, 그리고 일본 주민들에게 갖가지 기예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 의성이 독축관·서화인·활 잘 쓰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함이 심히 간절하니, 집정들을 제 집에 일제히 모아서 시재하여 관광하려는 때문이었다. 모두 허락하면서, 활 잘 쓰는 사람으로는 다만 세 사신에게 딸린 군관 각각 한 사람씩만 보내었다. 여러 관반에서 전례에 의하여 약간의 물품 목록을 보내었다.⁴⁰⁾

(나) 임태학의 제자 10여 인이 어제 제술관·서기 등을 찾아왔고, 오늘 또 10여 인이 찾아와서 참화하였으며, 이 문사 이외에도 良醫를 보고 화답을 요구한 것이 많이 있었다. 양의가 와서 말하기를,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들이 다 절구를 지어 왔기 때문에 미봉으로 화답하여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하니, 한 번 웃을 만한 일이었다.⁴¹⁾

(가)에서도 보이듯이 도주가 才人들을 모아 試才하고 관광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주나 관백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일반 백성들도 사신들의 숙소에 찾아와서 그림이며, 글을 받아갔다. 군관들도 원역으로

38) 사행화원의 주된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갑신사행의 화원 김유성에게 일본 지도 개정본을 그리게 하고, 또 동래부 소속화원으로 동행했던 卞璞에게 대마도지도와 일본의 지리도형을 모사케 한 일이다. (趙曦, 《海樣日記》, 1월 24일조, 10월 10일 조.)

39) 1748년 사행 때 부방군관 이일제를 시켜 아란(阿蘭)의 화포와 일본의 진법도(陣法圖)를 몰래 구해오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무진년 6월 12일.)

40) 남용익, 《扶桑錄》, 을미년(1655) 10월 11일.

41)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무진년 6월 4일.

따라올 때 試取를 보아서 差定했으므로, 일본인들 앞에서 그들의 기예를 마음껏 드러내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이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에서도 보이듯이 글쓰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良醫에게까지 글을 요구하는 것이 그러하다. 당시 조금만 글을 아는 자는 가리지 않고 일본인들의 요청이 있었으며, 심지어 小童까지도 글을 써주기도 했다.⁴²⁾

위의 표에서 본 상관의 구성이나 인원수를 다시 되짚어 보면, 이들 중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압물통사와 의원·화원이다. 앞서 보았던 상상관 중 당상역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압물관의 수 또한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 1682년 당상역관 수의 증원을 계기로 압물통사 또한 1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4원으로 규정되기 이전에도 1643년에는 일본인이 일본말을 아는 자 3·4인을 더하여 데려 오라고 하여 通事 3인을 더하여 정한 일이 있기도 하다.

화원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전부터 파견되었던 듯한데,⁴³⁾ 확실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607년 이후 화원을 선별하여 차정한 것이 여러 기록들에서 보이고 있으므로, 《통문관지》에서 화원을 빠뜨리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典醫監에서 1명·惠民署에서 1명으로 2명씩 규정하여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행록 속에 보이는 座目들에서도 그 구성원이 보이므로, 《춘관지》 기록상 빠뜨리고 기록을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 次官

42) 그림, 「馬上揮毫圖」.

43)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파견과 역할〉, 《美術史學研究》 205, 1995, p.6.

상관 중 군관과 함께 말을 타면서 여러 기예를 뽐낸 馬上才⁴⁴⁾, 악기를 연주하며 선상에서의 흥을 돋우거나 연회에서 음악을 선보이던 典樂, 말을 먼저 끌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理馬 등이 차관의 구성원이다. 또 세례 음식을 담당했던 熟手, 사신의 호위병 역할을 했던 伴僮⁴⁵⁾, 기선의 船將이 더해져 전체 차관을 이루었다.

이들 중 마상재와 전악은 앞의 일부 상관과 마찬가지로 관백이나 도주의 요청에 의해 기예를 보여주며 우월감을 과시했다.

(가) 도주 이정장로와 더불어 이미 길가 높은 누각에 앉아서 우리나라의 마상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재인 姜相周가 두 필의 준마를 달리는데 빠르기가 나는 듯 하였고 왼쪽으로 뛰다 오른쪽으로 뛰다 하면서 두 말의 등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고, 가로 누웠다 벌떡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은 것 같이 막혀 갈 수가 없었다.⁴⁶⁾

(나) 상판사 李昌基를 시켜 전악 2인과 악공 2명과 무인 4명을 거느리고 마주수의 집에 가게 하였는데, 저녁에 돌아왔다. 듣건대, 마주수는 발 안에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앉아 있고, 판자집을 새로 만들어 놓고 악공 등을 맞이해 앉혔으며, 악공이 삼현을 연주하고 나니, 흑 笛을 불고 거문고를 타게 하고 이어서 노래 부르게 하고, 또 악공 등을 시켜서 우리 나라의 절을 하게 하여 보더라 한다.⁴⁷⁾

44) 마상재는 조선시대 선조 이후 각 군영의 기병들이 행하던 무예로, 달리는 말 위에서 삼혈총 쏘기, 말등 좌우로 넘기, 죽은 듯이 가로눕기, 말다리 밑으로 몸 감추기, 물 구나무서기, 말꼬리 쪽으로 머리 두고 세로로 눕기, 말의 몸통 좌우로 몸을 감추기, 쌍마 타고 서서 총쏘기 등을 일컫는다.

45) 반당은 나라에서 왕자공신이나 당상관 등에게 차급되는 驅從(봄종)으로 伴人이라고도 하여 노자와는 구별되고 사사로이 부리는 반당을 私伴僮이라고도 하였다.

46) 申維翰, 《海遊錄》, 1711년 6월 30일.

47)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무진년(1748) 5월 28일.

(가)에서는 당시 마상제인의 재주를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전악과 악공이 불러가 기악을 연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도주 뿐 아니라 일반 민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큰 구경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江戸에서 관광차 사신들의 행렬이 이어질 때에도, 행차를 따르지 않고 江戸에 남아 관백에게 그 재주를 보여주는 일도 있었다.⁴⁸⁾

이들 차관의 구성과 그 규정된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次官 명칭과 인원수

통문관지		준관지		증정고린지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馬上才	2인	馬上才	2인	馬上才	2인
典樂	2인	典樂	2인	典樂	2인
理馬	1인	理馬	1인	理馬	1인
熟手	1인	熟手	1인	·	
伴尙	3인	伴尙	3인	伴尙	3인
船將	3인	船將	3인	船將	3인

※ 각 저서에서 나타나는 명칭이나 인원수로 볼 때 그 차이점은 음영으로 표시.

이상에서 보이는 명칭 중 변화가 있는 것은 熟手이다. 숙수는 연회·제례 등의 행사에서 음식을 담당한 직책인데 1682년 이후에는, 개정·보완된 《증정고린지》에서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은 1643년까지 행해졌던 ‘日光山致祭’⁴⁹⁾가 원인이다. 1682년 정월에 東萊府使를 통하여 幕府의 통신사행에 대한 요구가 다시 급히 조정에 전달되었다. 그 요구는 아직 장군의 일광산치제가 있기 전이므로, 타국의 사신이 먼저 분향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통신사 일행은 일광산치제를 준비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었다.⁵⁰⁾ 이것으로써 일광산치제는 중단되었고, 제례에서 음식

48) 任統, 《丙子日本日記》, 병자년(1636) 12월 18일.

49) 日光山에는 徳川家康을 봉안한 大權現宮, 徳川 막부의 3대 장군인 家光의 모당인 大猷院과 4대 장군인 家綱의 원당인 儼有院이 세워졌는데, 통신사 일행이 사행 중 실시 하였던 일광산치제라고 하는 것은 위의 세 곳에서 祭를 행한 것을 말한다.

을 담당하던 속수는 자연히 그 의미를 잃어 사행 원역에서 빠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는 원역 명칭에 있지 않아 설명이 안되었지만, 상관의 일원인 製述官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즉 일광산에서 치제하는 예가 있을 때에는 문신인 讀祝官 한 명을 두었으나, 그 후 치제가 폐지되면서 독축관도 그 의미를 잃어 명칭을 製述官이라 고치게 된다.⁵¹⁾ 세 외교저서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으니 이상하다.

차관은 어찌보면 일본으로의 사행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원역들로 구성된 듯 하다. 마상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요청으로 가게 된 것이고, 이전의 속수도 일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파견된 것이다. 또한 船將 같은 사람도 일본으로의 사행에서는 海路를 건너야 하므로 거기에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구성원인 것이다.

4. 中官

중관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 행차나 행렬, 선박의 운행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세 외교저서에서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록하기보다, ‘누가 몇 명씩 거느린다’는 식의 설명만 하고 있다.

우선 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卜船將·沙工이 있다. 북선장은 기선

50) 《邊例集要》 권18, 신사, 임술 정월 3일. 이 외에도 《통문관지》·《춘관지》·《증정교린지》에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다.

51) ‘장순순, 〈조선 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대학교 사학과석사 학위논문, 1989, p. 25.’, 그리고 ‘《練藜室記述》 別集 권18, 邊南典攷(通信使)’에 제술관으로의 명칭 변화내용이 나와 있다.

장과 비교할 때 같은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접대 기준에서는 더 낮은 관직으로 치부되었던 듯 하다. 이것은 사공과 격군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공의 주된 역할이 선박의 노를 젓는 일이고, 격군도 노를 젓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관의 열에 두어졌다.

또, 전체적으로 예단을 관리하고 기타 물품 및 노잣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禮單直·廳直·盤纏直이 있었다. 다음으로 높은 관직의 사신들을 보필하고 낮은 신분의 원역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원역들로, 陪小童·奴子·小通事·都訓導·使令·刀尺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삼사신·당상역관 등이 거느렸으며, 노자는 삼사신·당상관이 각각 2명씩 거느리는 것 이외에 상통사 이하 마상재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거느렸다. 이들이 거느린 인원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4〉 中官 중 上上官이 거느린 원역수

	정사	부사	증사관	당상역관	기타
배소동	4	4	4	2	제술관이 1명 거느림.
소통사	3	3	3		1명은 말을 끌고 먼저 감.
도훈도	1	2	1		
사령	4	4	4	1	
도척	2	2	2	1	

이들 중 소동은 풍악에 맞춰 춤을 추며 좌중에게 눈요기를 제공하기도 했고, 어떤 소동은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도 함께 하여 사신들이 각지에서 숙박하면서 홀로 그 지역을 둘러볼 때 자주 데리고 다녔다. 小通事는 통인통사라고도 불렀는데, 왜관 근처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무역과도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이라 삼사신의 수발을 들면서 통역에 관련된 일과 상관에 소속된 역관들이 하지 않는 잡다한 일을 도맡아 했다. 도훈도는 慶尙監營⁵²⁾이나 倭館에 거주하면서 경상지역 군직을 담당하였던 터라 삼사신에

52) 감영이란 조선시대에 각 도의 감사(監司:관찰사)가 정무(政務)를 보던 관청.

게 한 사람씩 분배되어 각 방 군직을 통솔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왜관에 소속된 훈도는 언어소통의 역할도 함께 했다. 사령은 수군을 통제하는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원들의 통제를 담당한 것과 동시에 숙소 및 관소를 지키는 역할도 함께 맡았다. 그리고 도척은 음식을 만드는 직책으로, 삼사신의 배에 소속되었으며, 그들의 식사 및 음식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다.

앞에 설명한 이들 외의 나머지는 모두 수군 업무와 명령 전달, 그리고 사신 행차시 깃발이나 창을 들고, 행군악을 울리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직무와 명칭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5〉 水軍업무를 담당한 中官

명칭	직 무
吹手	喇叭이나 角, 螺를 등을 부는 사람을 가리킨다.
節鉞奉持	節과 斧鉞 ⁵³⁾ 을 받들고 가는 사람을 말한다.
砲手	총포를 들고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形名手	형명기를 들고 가면서 旗幅과 북을 울려서 군대의 여러 가지 행동을 신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纛手	纛 ⁵⁴⁾ 을 받들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月刀手	偃月刀 ⁵⁵⁾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巡視旗手	巡視旗 ⁵⁶⁾ 를 받들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令旗手	令旗 ⁵⁷⁾ 를 받들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清道旗手	清道旗 ⁵⁸⁾ 를 받들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三枝槍手	三枝槍 ⁵⁹⁾ 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長槍手	길이가 4미터 정도 되는 긴 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馬上鼓 ⁶⁰⁾ 手	말위에서 북을 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銅鼓手	쟁과리를 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大鼓手	큰 鼓 ⁶¹⁾ 를 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三穴銃手	총신이 3개가 겹쳐있는 삼혈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細樂手	吹打가 아닌 장구, 북, 피리, 깡깡이를 연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鐸手	징을 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53) 節은 손에 드는 旗와 같고 鉞은 도끼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생살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임금이 지방장관과 대장,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띤 관리에게 내려준 것이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旗들은 모두 軍中에서 사용하는 軍旗들이다. 사행에서의 원역들은 군적을 띠고 가는 이들도 많았는데, 사실상 수군의 통제하에 있는 格軍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00명에서 500여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율에 의거하는 것이 제일 적합했을 것이며, 임진왜란 이후 시작된 회답사를 떠올리더라도 군사적인 임무를 띤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깃발의 형태뿐만 아니라 鼓吹樂器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樂手들은 행렬에서 소리를 내어 명령을 전달하거나 행진 분위기를 돋우워 주는 吹打樂器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나 細樂手까지 더해진 것을 보면 이들이 大吹打⁶²⁾를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
- 54) 纛은 大駕 앞이나 軍中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는 기의 한 종류이다.
 - 55) 언월도는 大刀의 한 종류로 날은 끝이 넓고 초승달 같이 되었으며, 칼등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밑은 용의 아가리를 물러있고, 자루는 붉은 칠을 하여 끝에 불미를 맞추었다.
 - 56) 순시기는 軍中을 순시할 때 사용하던 기이다. 청색의 바탕의 깃발에는 ‘巡視’라는 두 글자가 붉게 새겨져 있고 깃대의 길이는 5자이다.
 - 57) 영기는 군중에서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로서, 푸른 바탕의 사각 깃발에 붉은 색의 ‘승’ 자 혹은 적색 바탕에 청색의 ‘승’ 자, 적색 바탕에 흑색의 ‘승’ 자를 새겨 넣었다. 깃발의 길이는 5자, 깃대의 끝은 槍刃으로 되어있고, 그 아래 직경 3치의 납작한 방울을 달아 비너를 꽂아 놓았다. 기를 흔들면 소리가 나므로 일명 ‘צל링기’ 라고도 했다.
 - 58) 청도기는 행군할 때에 앞에서 길을 치우는데 쓰였으며 수효는 2개이다. 깃발은 바탕이 청색인 사각기이고 적색의 화염각이 달려 있으며 ‘淸道’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깃대 길이는 8자이고, 영주와 주락이 있으며, 깃대 끝은 창인으로 되어있다. 본래 청도기는 칙사가 제후국에 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일본 측에서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다.
 - 59) 삼지창은 당파창이라고도 하며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 60) 미상고는 騎士鼓 혹은 鞞라고도 하며 군대가 행진할 때에 말 위에서 치는 북이다.
 - 61) 행진할 때 사용한다. 조선초기에는 나무로써 북통을 만들어 붉은 칠을 하고 모란을 그리며, 가죽으로 면을 만들었다. 후기에는 연꽃을 그렸다.
 - 62) 고취악수는 군중에서 취악기와 타악기를 다루던 군사를 말하며 취타와 세악을 겸한 대규모의 군악을 대취타라 하는데, 主將이 일어설 때, 陣門을 크게 여닫을 때, 또는

이들과 함께 앞서 설명했던 중관을 통틀어 세 외교저서에서의 인원수 규정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표 6〉 中官 명칭과 인원수

통문관지		준관지		증정교린지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卜船將	3인	卜船將	3인	卜船將	3인
陪小童	17명	陪小童	17명	陪小童	19명
奴子	49명	奴子	49명	奴子	52명
小通事	10명	小通事	10명	小通事	10명
都訓導	3인	都訓導	3인	都訓導	3인
禮單直	1명	禮單直	1명	禮單直	1명
廳直	3명	廳直	3명	廳直	3명
盤纏直	3명	盤纏直	3명	盤纏直	3명
使令	16명	使令	16명	使令	18명
吹手	18명	吹手	18명	吹手	18명
節鉞奉持	4명	節鉞奉持	4명	節鉞奉持	4명
砲手	6명	砲手	6명	砲手	6명
刀尺	7명	刀尺	7명	刀尺	7명
沙工	24명	沙工	24명	沙工	24명
形名手	2명	形名手	2명	形名手	2명
羸手	2명	羸手	2명	羸手	2명
月刀手	4명	月刀手	4명	月刀手	4명
巡視旗手	6명	巡視旗手	6명	巡視旗手	6명
令旗手	6명	令旗手	6명	令旗手	6명
清道旗手	6명	清道旗手	6명	清道旗手	6명
三枝鎗手	6명	三枝鎗手	6명	三枝鎗手	6명
長鎗手	6명	長鎗手	6명	長鎗手	6명
馬上鼓手	6명	馬上鼓手	6명	馬上鼓手	6명
銅鼓手	6명	銅鼓手	6명	銅鼓手	6명
大鼓手	3명	大鼓手	3명	大鼓手	3명
三穴銃手	3명	三穴銃手	3명	三穴銃手	3명
細樂手	3명	細樂手	3명	細樂手	3명
鑿手	3명	鑿手	3명	鑿手	3명

※ 각 저서에서 나타나는 명칭이나 인원수로 볼 때 그 차이점은 음영으로 표시.

陵行을 위하여 임금이 성문을 나갈 때에 대취타를 취주하였다. 어전의 겸내취(兼內吹)를 비롯하여 서울의 5영문(營門)과 지방의 감영, 수영, 병영 등에 있었으며 각 고을에는 소취타가 있었다.

위의 표에서 변화가 있는 원역은 배소동·노자·사령으로 그 명칭의 변화는 없고, 인원수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당상역관의 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배소동은 삼사가 각각 4명·당상이 각각 2명·제술관이 1명을 거느렸고, 노자는 삼사 및 당상이 각각 2명·상통사 이하 마상재에 이르기까지 각각 1명을 거느렸으며, 사령은 삼사가 각각 4명·당상이 각각 2명을 거느렸다.

위 세 원역 모두 당상관이 거느리는 인원수에 포함되므로 당상이 1원 늘어나면서, 배소동이 2명·사령이 2명·노자가 2명 늘어났다. 노자는 압물통사가 1원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총 3인이 늘어난 것이다.

중관은 대부분 행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악대나 기수 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下官

하관은 그 인원수가 가장 많다. 이들은 대부분 格軍으로서 중관의 일부 기수 및 최고수 등과 兼職을 하였고, 水軍의 가장 하부직으로 格人 혹은 結軍이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대부분 해안지방이나 강가에 거주하던 이들로, 최하위 수군의 역할을 했다. 사행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두 軍律에 의해 다스려졌고, 사공들의 곁에서 일을 돕거나 노를 젓고, 기타 잡다한 일을 함께 했다.

일본인들은 良醫나 製述官·寫字官·譯官들은 수시로 충원을 요청했으

나, 전체적인 원역수에서는 감원을 원했으므로, 격군은 그 인원수를 줄이면서 여러 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짐승들을 잡는 屠牛場은 격군 중에서 충당했고, 강희 임술년에 일본인들이 人役의 감원을 청하면서 形名手·麤手, 그리고 月刀手 이하 쟁수에 이르기까지 58명은 격군으로써 충당하였다.

차관 중 典樂은 2원이었는데, 이들은 掌樂院에서 악공의 스승격인 자들로 正六品의 遞兒職이었다. 이들 이외에 악기를 연주하며 배우던 이들은 樂生 혹은 樂工이라 불리었다. 악공은 원래 雅樂署의 良人 樂工과 典樂署의 賤人 樂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세조 때 이들을 합쳐 掌樂署로 삼는 동시에 良賤을 구별하여 樂生(양인)은 左坊에 樂工(천인)은 右坊에 소속시켰다.⁶³⁾ 그러다가 예종 때 양천을 并差하게 되어⁶⁴⁾ 그 후로는 장악원의 잡직 안에 종합하여 정비하였으나 樂生·樂工의 구별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하관의 風樂手는 良賤이 다 섞여 있었던 관계로 하관에 두어졌던 것 같다.

특히 악생과 악공은 인원수가 300~400여 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사행에 따라가는 풍악수는 하삼도 지방에 거주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차출하여 구성했던 것 같다.

〈표 7〉 下官 명칭과 인원수

통문관지		준관지		증정고린지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명칭	인원수
風樂手	12명	風樂手	12명	風樂手	18명
屠牛場	1명	屠牛場	1명	屠牛場	1명
格軍	270명	格軍	270명	格軍	270명

※ 각 저서에서 나타나는 명칭이나 인원수로 볼 때 그 차이점은 음영으로 표시.

63) 《世祖實錄》 권13, 4년 6월 병술.

64) 《睿宗實錄》 권3, 1년 2월 계축.

위의 표에서 보면 풍악수의 수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삼사가 각각 4명을 거느리던 것이 이후에 각각 6명을 거느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총 6명이 늘어난 18명이 된 것이다.

이들 하관 내에는 격군이라 이름 하였지만, 행차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잡다한 심부름을 함께 하는 及唱도 있었고, 기타 일본인이 충원을 요청했던 晝傭이나 私奴 등이 격군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III. 使行 員役의 差定

원역의 구성과 직무를 안다고 해도, 그 성격을 다 알 수는 없다. 구체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의도·방식으로 선출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거니와 개개 직책별로 차정 절차와 내용을 밝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당시의 사료에서 원역 차정에 관한 규정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당시 사신에 관련된 부분은 六曹 중 禮曹와 備邊司를 중심으로 원역의 差出에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 원역 차정 담당을 표로 작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전체 員役 차정

차정 담당	원역명칭	해당 司	원역구분	차정 담당	원역명칭	원역구분
三使 自辟	子弟軍官		上官	地方 監營	船將	次官
	奴子		中官		卜船將	中官
	대부분의 원역 자백 가능.				陪小童	
中央 該司	堂上譯官	司譯院	上上官		小通事	
	上通事	司譯院			都訓導	
	製述官	承文院			使令	
	良醫	典醫監			吹手	
	次上通事	司譯院			節鉞奉持	
	押物官	司譯院			刀尺	
	寫字官	承文院	上官		沙工	
	醫員	典醫監, 惠民署			形名手	
	畫員	圖書署			羸手	
	軍官	軍器寺			月刀手	

	訓練都監			
書記	承文院			巡視旗手
別破陳	軍器寺			令旗手
馬上才	訓練都監			清道旗手
典樂	掌樂院	次官		三枝鎗手
理馬	司僕寺			長鎗手
伴尙				馬上鼓手
禮單直	兵曹			銅鼓手
廳直	兵曹	中官		大鼓手
盤纓直	兵曹			風樂手
	砲手	訓練都監		屠牛場
				格軍
				下官

그러나 예조와 비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 원역의 차출 모두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원역의 성격에 따라 삼사의 자벽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고, 해사나 감영에서 선출하기도 했다.

사절단의 구성은 막부의 명을 받아 일본의 對朝鮮 외교를 담당하던 對馬藩에서 通信使請來差倭(修聘參判使)를 보내 사행을 요청하면 예조의 건의에 의해 비변사에서 이를 검토하여 왕의 승낙을 받은 후, 正使·副使·從事官 등 三使의 임명과 더불어 착수되었다.⁶⁵⁾ 三使는 예조에서 議政府와 의논하여 각각 3명씩의 후보 명단을 올리면 왕이 落点하여 결정했으며, 대체로 사행 출발 5~1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⁶⁶⁾

이와 같이 三使가 선정되면 사절단 구성에 필요한 인원을 직무로 인선했는데, 譯官·製述官·書記·醫員·寫字官·畫員·子弟軍官·馬上才·典樂 등의 주요 원역들은 三使임명 후 三使와 該司에서 의논하여 뽑았던 것 같다. 《六典條例》에 의하면 통신사 수행원역은 '正使自辟'⁶⁷⁾, 즉 사행의

65) 《春官志》권2, 〈通信使一行先後座日〉 및 《通信使臚錄》1冊~14冊 참조.

66) 남용익, 《扶桑錄》상, 〈扶桑日錄〉, 1655년.

正使가 선정한 다음 왕에게 啓請하여 승인을 얻어 차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들은 자제군관이나 반당·사노자 등 일부 원역에 한정되었다. 실제로는 원역의 경우 《通信使曆錄》에 ‘各該司擇送’이라 명기되어 있고, 또 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 통신 正·副使들이 ‘各衙門差出之事’라고 답했듯이 수행원역들은 해당 관서에서 직접 차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三使의 권한이 더 강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해사 외에 지방의 監營이나 水營 등에서는 배에 필요한 격군과 사공, 기수, 취수 등을 선발했다. 기예를 뽑내는 이들 못지않게 이들도 배의 운행을 위해서나 안정된 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들이라 엄격하게 가려 뽑았다.

구성원의 직무는 일본인들의 집대구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차정은 조섬에서 직접 담당했던 만큼 조선에서의 구분을 중심으로 세부 원역들의 차정 과정을 짚어보도록 한다.

1. 三使의 自辟

삼사신 임명 후 모든 해당 관서가 일제히 나머지 원역들을 차출하지는 않았다. 삼사신 결정 후 우선은 삼사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을 삼사의 자벽에 의해 차정하였다. 삼사신의 친인척 자제로 구성된 자제군관 및 군관, 제술관, 서기,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⁶⁷⁾

삼사신이 거느리는 원역 일행은 口傳⁶⁹⁾으로 하면 대부분 吏曹에서 보내

67) 자벽이란 장관이 자의로 관원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8) 《중정교린지》 제 5 권, 都口傳式.

69) 3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 吏曹나 兵曹에서 落點을 거치지 않고 뽑아 쓰는 것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증정교린지》에 제시되어 있는 삼사의 구전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조 郎位 兪尊 侍恐 鑑

某職 姓名을 군관으로 自望⁷⁰⁾하여 보내고, 모직 성명을 제술관으로 자백하였고, 모직 성명을 서기로 자백하였고, 모직 성명을 의원으로 자백하니 이전의 예에 따라 구전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연호 몇 년 간지 모월 모일 통신 정사 성명 서명-부사와 종사관은 모두 같으나 제술관과 의원은 없다.

위의 글에서도 보이듯이 원역 중 특히 군관·제술관·서기·의원이 자백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제술관과 의원은 정사에게만 권한이 있고, 부사와 종사관에게는 없었다.

위의 원역 중 자제군관은 특히 자백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제군관은 삼사신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자들이라 가장 직접적인 자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지난 해에 徐命膺·嚴璘·李得培를 세 사신으로 차출하였다가 떠날 무렵 다른 일로 인하여 아울러 그 직을 갈고 일체 새로 제수하니, 자뫼 戰陣에 임하여 장수를 바꾼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자제군관 외의 원역 이하는 한결같이 전전 사신이 이미 차정한 대로 하였다.⁷¹⁾

위의 글에서도 보이듯이 세 사신이 바뀐 후 나머지 원역은 이미 차정한 대로 했지만, 자제군관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사행 시 일반 군관이 나 반당 외에 자제를 데리고 간 것은 친속끼리 서로 의지하게 하려 한 때

말한다.

70) 自辟望의 준말로, 이조에서 서임하지 않고 해당 장관이 임의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천망단자를 가리킨다.

71) 趙職, 《海槎日記》, 계미년(1763), 8월 3일.

문이었다.⁷²⁾ 그 결과 가까운 친숙인 자제군관은 삼사의 자벽에 의해 차정한 것이다.

동신사행은 조선과 연결된 육로로 가는 중국 사행과는 달리 해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사행이었으므로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컸다. 그래서 국왕도 그러한 면은 걱정하기도 했다.⁷³⁾ 그래서 사행에서 친숙끼리의 혈연적 연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제군관은 정사·부사가 각각 2원을 대동하고, 종사관이 1원을 대동하였다. 전체 인원수는 5원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당시 사행에서 대표적이던 삼사의 든든한 혈연적 지지자였음은 틀림없다.

자제군관 외에 일반 군관도 자벽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군관은 정사·부사가 각 5원씩, 그리고 종사관이 2원을 거느렸다. 그러나 그 중 6兩箭을 멀리 쏘고, 半弓을 잘 쏘는 자 각 1원은 병조에서 시취하여 선발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삼사가 직접 선발하였으며, 권한도 더 강했던 것 같다.

당초에 金光立은 훈련도감의 장관이고, 李俊望은 別抄廳의 무사이고, 백사철은 옥포만호였는데, 내가 그 무예가 나라 안에서 제일임을 들었었고 마침 유생들이 상소하되, “일본가는 통신사는 모름지기 뒷날에 대장이 될 자를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하여, 이 일을 비변사에 내리매, 비변사가 계청하여 군관을 모두 아주 잘 가리게 허락하도록 청하였으므로, 내가 드디어 이 세 사람을 청하니, 훈련도감·별초청이 모두 방계(防啓)하였는데, 상께서, “특이한 재주가 있을 것 같으면 보내 주는 것이 옳다.”하니, 이로부터는 훈련도감이 다시 말을 못하였다.⁷⁴⁾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당시 해당 사인 훈련도감보다 부사였던 김

72) 趙職, 《海槎日記》, 계미년(1763), 8월 3일.

73) “이 걸음은 북경에 가는 것과는 다르니 내가 애처롭게 여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힘써서 좋게 갔다 오기를 바란다.” (남용익, 《부상록》, 을미년, 4월 20일)

74) 金世濂 《海槎錄》, 병자년-1636년 9월 13일.

세림의 군관 선정권이 더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사행 초기 부터 나타나는데, 1607년 회담검쇄환사행 때 여우길은 자신이 데려갈 군관을 직접 자망하여 왕에게 아뢰기도 했다.⁷⁵⁾

이 외에도 삼사신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격군이나 소동에 포함하여 데리고 갔었던 듯하다.

(가) 동래 장교 변박은 곧 내가 동래 부사로 있을 때에 신임하던 자인데, 사람됨이 자못 영리하였다. 이번 걸음에 격군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왔더니, 부사가 복선장의 대임이 없음을 걱정하므로, 박을 대임으로 삼았다.⁷⁶⁾

(나) 李漣川梅는 고 판서 李鑣의 서손자이다. 젊을 적부터 서로 친하며, 그가 지려가 많고 사무를 잘 알아서 온갖 일에 합당하리라는 것을 익히 알았으므로, 일찍이 동래부와 영남 감영에 있을 적에 5년 동안 막하에 두고 한결같이 신임하여 크고 작은 官事를 거의 자문하였다. 시기하는 자가 많았지만 그는 원망을 말고 公事를 받들기를 회피한 바가 없었으며, 품은 생각은 반드시 말하여 절로 지우가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더욱 믿었고, 움츠린 처지에서 크게 펴지 못함을 더욱 아까워했는데, 이번 사행에 수행하게 했더니 첫 마디에 응하였다. 나이 60이 지난 이가 바다를 건너는 만리 길을 조금도 어렵다 아니하였으니, 가히 將幕의 의리를 깊이 알았다고 할만하다. 군명을 배반하고 역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자들과 견주어 과연 어떠한가?⁷⁷⁾

(다) 通引 朴泰秀는 내가 동래부사를 할 적에 부리던 사환으로 극히 영리하고 문장에도 능하므로, 비록 吏役에 종사할망정 상투를 내려서 데리고 왔던 것인데, 이제 다시 상투를 올려서 광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⁷⁸⁾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당시 정사였던 조엄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75) 《선조실록》, 39년 10월 10일

76) 조엄, 《해사일기》, 계미년 11월 1일.

77) 조엄, 《해사일기》, 갑신년 5월 6일.

78) 조엄, 《해사일기》, 갑신년, 4월 9일.

친분이 두터웠던 자를 격군이나 소동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여 사행에 임하고 있다. (가)에서는 당시 동래 도훈도이던 변박을 격군이란 이름으로, (나)에서는 자신의 지인을, (다)에서는 통인 박태수를 소동이란 이름으로 데리고 간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일은 비단 정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니고, 부사·중사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다.

2. 該司의 差定

삼사신의 자백 후 나머지 원역들 중에서도 일부는 중앙의 해사에서 우선적으로 차정하였다. 그 예로 《통신사등록》에서 1643년 통신사 사행시 應行諸事와 일행 원역수를 제시한 후 택정해 놓은 것을 인용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⁷⁹⁾

〈표 9〉 通信使 使行時의 應行諸事와 一行 員役人數

직책	인원	직책	인원	직책	인원
上使	1	副使	1	從事官	1
上使子弟	2	副使子弟	2	從事官子弟	1
軍官	6	軍官	6	奴子	1
奴子	2	奴子	2	倭通事	5
漢學通事	2	醫員	2	畫員	1
別破陣 兼 軍官	2	砲手	2	寫字官	1

- 砲手는 甲子年의 예에 의거해서 감하고, 각각 해당 司로 하여금 뽑아서 보낸다.
- 일행 원역이 각각 거느리고 가는 奴子 1명.

79) 표 9-10은 ‘《통신사등록》 1冊 33面, 癸未(인조21) 1. 5.’와 ‘《통신사등록》 1冊 42面, 癸未 2.’ 참조.

〈표 10〉 通信使一行 員役의 官職과 姓名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正使	兵曹參知 尹順之	副使	弘文館典翰 趙綱	從事官	吏曹正郎 申滯
堂上譯官	行司直 洪喜男 行司果 李長生	上通事	行訓導 金謹行 前判官 尹悌顯	次上通事	前直長 鄭時謹 前奉事 金時聖
押物通事	前正 金弘立	加定通事	前正 李亨男 前正 韓相國 前主簿 尹誠立	漢學上通事	前正 鄭忠獻
漢學押物通事	行司勇 咸植	醫員	前正 金浩 前主簿 宋擎日	吏文學官	進士 朴安期 進士 鄭彥悅
寫字官	朴崇賢, 金義信	畫員	金明國, 李起龍	天文學	前正 黃孝恭
正使子弟軍官	哨官 尹金之 業武 尹賤之	副使子弟軍官	忠儀衛 趙憲 閑良 韓相良	從事官子弟軍官	前主簿 申泰海
(正使)軍官	前府使 趙應立 哨官 鄭傳賢 兼司僕 鄭信卿 前萬戶 李鎔 司果 崔奇男 前司果 張翊	(副使)軍官	前郡守 金敏學 前縣監 洪宇亮 前萬戶 孟尙賢 內禁衛 李大仁 前司果 李猩 前萬戶 柳贊蕃	別破陣兼軍官	朴義龍, 李禮男
馬上才	方繼男, 姜承善	理馬	金得信	典樂	金磨瑄, 薛義立, 林許美, 趙應立, 金龍金, 金千
熟手	李云, 張芑屎				
正使伴人	曹孝儉	副使伴人	文奇遠	從事官伴人	李義信
(正使)奴子	信一, 茂應實	(副使)奴子	先仁, 生伊	(從事官)奴子	禮男, 點伊

· 당상역관 이하 원역노자 23명, 군관 노자 19명.

〈표 9〉에서도 보이듯이, 삼사가 정해진 후에 개인별로 직접 정하는 원역은 자체군관과 노자, 반인이며, 그 다음 우선적으로 정하는 이들은 通事·醫員·畫員·軍官·寫字官 등의 사람과 雜藝를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표 10〉에서는 택정한 이들의 관직과 성명을 제시해 놓았는데,

하부 원역은 없고 잡예를 가진 이들 중 마상재인과 전악이 더해졌고, 그 외 이마와 숙수가 보인다. <표 10>의 내용은 상상관부터 이마까지의 職姓名을 우선 제출해 달라⁸⁰⁾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사본인데, 여기에서 하부 원역의 직성명이 빠진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 군직을 띠고 가는 하부 원역들은 모집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인원수도 많아서 차정이 쉽지 않고 변동도 많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직성명이 빠진 탓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접대 순위로 생각해 볼 때 상부 원역들보다 준비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서 전체 숫자만 알면 세부 직성명은 그다지 급한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해사가 우선적으로 정하는 이들 원역은 나름대로 일본에 조선의 입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전부터 조정에서 통신사를 대우하는 모든 절차가 특별히 지극하고 후하였다. 원역으로 말하면, 군관을 이름 있는 무관으로 한 것은 변방 사정에 익숙한 자를 하려 한 것이요, 자제를 데리고 간 것은 친숙끼리 서로 의지하게 하려 한 것이며, 장사(壯士)를 데리고 간 것은 그 용맹과 힘을 남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요, 제술관·서기를 데리고 간 것은 문자를 수응하게 하려 한 것이며, 왜역·한역을 데리고 간 것은 그 언어를 서로 통하게 하려 한 것이요, 의원을 데리고 간 것은 그 병을 치료하게 하려 한 것이며, 사자관·화원 및 그 별파진·마상재·전악·이마를 데리고 간 것은 기예를 어느 것이나 이웃 나라에 뒤지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⁸¹⁾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통신사행 원역으로 우선 뽑는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조선의 높은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시 말해 이들 원역이 당시 사행에서 그에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80) 《통신사등록》 1冊~14冊.

81) 趙職, 《海槎日記》, 계미년(1763) 8월 3일.

이들 원역의 선발은 우선시하여 엄격히 차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사별로 어떤 원역들을 차정하였으며, 그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가) 譯官

조선후기 통신사 파견 시 수행했던 역관은 小通事를 제외하고 연인원 118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 중에는 동일인이 수회에 걸쳐 방일한 경우도 있으므로 총 인원수에서 2회 이상 방일한 횟수를 빼면 실제 사행 인원은 99인이 된다. 99인의 역관 중 왜학역관은 총 81명이고 한학역관은 18명이다.⁸²⁾ 이들 중 사행에서 한학역관은 중국의 표류민이나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한학역관은 총 역관 수에서 2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왜학역관이었다.

이들 수행 역관의 선발 기준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通信使 隨行譯官 選拔基準

구분	인원	선발기준	품계	비고
당상역관	3	敎誨堂上	정3품 이상	三使 各 率1名
상통사	3	倭學敎誨		漢學 1인, 倭學 2인
차상통사	2	倭學敎誨		
압물통사	4	倭學敎誨 및 聰敏 中 역과출신자		漢學 1인, 倭學 3인
소통사	10	釜山倭館의 生徒		三使各率三名 一名領馬先行
계	22			

역관들은 위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小通事를 제외하고는 司譯院에

82) 金瑞蘭, 〈朝鮮後期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 (i).

서 차출하였다. 사역원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맡은 기관이었다. 여기에서 한학역관 외에 왜학역관의 선발 기준은 ‘極擇’과 ‘精擇’의 원칙에 의해 일본어에 능통한 것이 제일 조건이었다. 역관들은 삼사신을 도와 외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본어에 능통하여야만 했다. 수행 역관이 당상역관을 비롯하여 上通事, 次上通事, 押物通事, 및 小通事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관직과 일본어의 능통 정도에 따른 편성이었다. 따라서 수행 역관의 선발은 취재를 통해 일본어에 능통한 역관을 선발한다든지, 역과를 통해 선발된 사역원의 역관들 중에서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자만을 수행 역관으로 선발하였다.⁸³⁾

당시 차정되어 사행을 떠나는 역관 중에서는 일본어 실력이 모자라는 역관이 있었던 관계로 죄를 짓거나 뺨을 당하여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본어에 능통한 자를 더해서 파견하기도 했다. 1711년 사행에 앞서 당상역관의 차출을 두고 왕에게 일본어 실력이 좋고 경험이 풍부한 韓後媛은 喪中에 있고, 崔尙曠은 罪中에 있어 차출의 어려움을 애기한 적이 있다.⁸⁴⁾ 이에 肅宗은 한후원은 起復하여 보내도록 했고, 최상집도 사행이 출발한 후에 加定⁸⁵⁾하여 사행에 동참하게 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 사행에서 역관들의 일본어 실력이 차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어에 능통한 역관이 소수였던 관계로 사행에서는 역관 세습가문에서 여러 차례 사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역관을 선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조에서 실시하는 譯科를 통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역과와는 별도로 取才를 통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 역과를 일종의 기술 고시라고 한다면 취재는 하급 기술관 선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83) 金瑞蘭, 앞의 논문, p. 37.

84) 《國譯備邊司謄錄》, 숙종 36년(1710), 9월 18일.

85) 인원수를 정한 수 이상으로 늘림.

역과는 初試와 覆試로 나누어져 시행되었는데 초시는 上式年 가을에 사역원의 주관 아래 실시되어 한학 23인, 기타 3학(蒙語·女眞語·倭語) 각 4인 등 도합 35인을 선발하였고 복시는 式年 봄에 예조와 사역원의 提調의 주관 아래 실시하여 19인을 선발하였다. 선발 방법은 講書·寫字·譯語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역과의 응시 자격은 《經國大典》에 제도적인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大典後續錄》에 의하면 사역원 생도나 7품 이하 관리로서 四書·小學·史文에 조예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과 합격자는 일단 사역원의 權知로 배속되는데 壯元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을 수여하였다.

본과 시험 외에 院試와 取才는 상호 연결되는 것으로 원시는 취재를 보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시험의 성격을 띤다. 院試란 왜인과의 교접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회화를 시험하는 것으로 16세기 이후 등장하여 점차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시는 2명이 짝을 지어 講論을 하여 三分 이상자만이 취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며 취재를 위한 예비 시험이었으므로 春·夏等に 실시하는 취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월, 12월 원시에 합격하여야 하였다. 원시는 兼教授 1員과 訓上堂上 2員이 감독관으로 임명되고 春秋 등과 夏冬 등으로 나누어 년 4차례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발된 역관들은 사역원에서 훈도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가 많고 국경이 맞닿은 각지에 파견되어 통역의 임무와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중 사행에서 제일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왜학역관들은 사역원의 왜학훈도(2인, 정9품)와 외임인 부산포와 제포의 왜학훈도(2인)로서 또 제주도의 왜통사(1인)로서 활약하였다. 사역원의 왜학훈도는 왜학생도들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부산포의 왜학훈도는 왜관 내에서 관왜를 접대하는 일과 왜학생도의 교훈을 담당하였으며, 또

제주도의 왜통사는 표류 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임무였다.

시험을 쳐서 역관이 되는 이들 외에 부산에 있는 왜관⁸⁶⁾에서 생도로 있으면서 훈도의 교육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왜학 小通事를 형성하였다. 小通事는 사행에서 간단한 통역 외에 잔심부름이나 잡역을 도맡아 했다. 생도들은 훈도의 교육 외에 일본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들의 언어 습득 방법에 대해서는 《通航一覽》에 《金溪雜話》를 인용한 것이 있다. 〈通辭〉를 조선음으로 トクソウ(토쿠소우)라고 한다. ‘어떻게 倭語를 배우는가 하면 부산 왜관에는 늘 대마도 사람이 체류하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朝夕으로 왜관에 출입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준다. 이렇게 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왜어에 통하게 되어 신사 내빙시에는 이들 중에서 通辭를 뽑는다고 했다. 또 1764년에 방일한 차상통사 李命和 역관에 대해서 인사말 정도는 통하지만 말이 조금 어렵든가 말이 길 때에는 전후상하가 전도하여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일본의 히라가나(ひらがな), 일본노래, 일본시도 조금씩 배워 남이 칭하면 옛날 노래 같은 것을 잘 써주고 하는데 나한테도 ‘あの山の月が鳴かせた杜鵑’(저 산의 달이 울렸던 두견)이라는 시구를 써준 일이 있다’고 하였다.⁸⁷⁾

조선 초기에는 왜학생도가 사역원의 15인, 齊浦·釜山浦의 각 10인, 鹽浦에 5인, 모두 40인이었으며 지방에서 1년에 6인씩 왜학생도를 세공하게 되어 있었다.⁸⁸⁾ 이로 보아서 그 당시에는 꼭 부산 왜관에서만 생도를 小通事로 뽑았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1607년 사행 이후에는 小通事が

86) 1601년 부산에 절영도 왜관이 지어진 후 1607년 두모포 왜관이 건설되어 1678년까지 존속하였다. 1678년 이후에는 초량 왜관 건설로 왜관 업무가 모두 초량으로 이전되었다.

87)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pp.293-294.

88) 李成茂, 〈조선초기의 기술관과 그 지위〉, 《해암유흥렬박사화갑논총》, 1971, pp. 197-204.

부산에 있는 왜관에서 차출되어 나갔다. 《증정교린지》에서 小通事의 수가 1739년 30명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조선초기의 부산에 배정되었던 10인에 비하면 각지에 있던 小通事가 부산에 있는 왜관으로 모인 듯한 느낌이 든다. 결국 통신사행 때 小通事 10인은 사역원에서 차출된 여러 역관들과 함께 부산 왜관에서 차출되어 사행에 참가하였다.

(나) 製述官

통신사행에서 기록에 보이는 조선시대 최초의 제술관⁸⁹⁾으로는 車天輅를 들 수 있다. 조선 전기 마지막 통신사행인 1590년, 정사였던 黃允吉이 문장에 능한 차천로를 사행에 대동할 것을 청한 적이 있다.⁹⁰⁾ 이것을 전례로 하여 1607년 회담검쇄환사때 정사 朴祐吉은 원역 선출과정에서 제술관과 사자관이 없음을 발견하고, 1590년 통신사행에 차천로와 李海龍이 제술관과 사자관으로 참여했던 것을 예로 들어 제술관과 사자관을 대동하게 해 줄 계를 올리게 된다.⁹¹⁾

차천로는 최초의 제술관이기는 하나 그 당시 文才之士를 칭하는 사행직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관직명인 承文院 소속의 제술관을 차용하여 그대로 사행직명에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⁹²⁾ 그렇다고 해서 1607년 첫 사행부터 제술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제술관이라는 명칭은 1682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學官·讀祝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

89) ‘申維翰, 《海遊錄》(1719), 序’ 부분에서 차천로를 최초의 제술관이라 칭하고 있다.

90) 《宣祖實錄》 권23, 22년 12월 병자.

91) 《宣祖實錄》 권204, 39년 10월 신해.

92) 張舜順, 〈朝鮮後期 通信使行의 製述官에 대한 考察〉, 전북대학교 사학과석사학위논문, 1989, p.6.

그 변화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⁹³⁾

〈표 12〉 製述官 명칭 변화

통신사행회차	1	4	5-6	7-12
명칭	(學官)	吏文學官	讀祝官	製述官

위의 표에서처럼 처음부터 제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회답겸쇄환사 시기에는 그 이전의 사례가 명확하지 않아 차천로의 경우처럼 관직명으로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일광산치제 때 향·축·제의를 위해 독축관을 선발하면서 명칭 변화가 일어난 듯 하다. 그러다가 제술관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일광산치제의 폐지 때문이다.

오산 차천로(車天輅)가 일찍이 뽑혀 가 그 나라의 글을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와 글씨를 휘둘러 명성이 대단히 높아 그 나라 사람들의 기뻐하고 우러르는 바가 되었었다. 그 뒤 백여 년 간은 통신사가 갈 적에는 반드시 조정 선비 중 문장에 능한 사람을 선택하여 독축관 겸 제술관이라 이름하여 일행의 글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였었다. 임술년에 사신이 갈 때에 비로소 일광산의 치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독축관이라 이름하지 않고 제술관이라 하였다.⁹⁴⁾

위의 글은 1719년 통신사행에서 신유한이 제술관으로 뽑혀 가게 되면서 서문에서 이전의 제술관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그는 임술년(1682)에 사신이 갈 때 일광산치제를 폐지하면서 그 명칭도 독축관에서 제술관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다. 이 시기는 독축관의 명칭 변화 외에도 제례 음식을 담당하던 속수가 그 의미를 잃어 원역에서

93) 張舜順, 앞의 논문 p.8.

94) 申維翰, 《海遊錄》(1719), 序부분.

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원역 명칭이나 인원수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술관은 어떻게 차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러 사료에서 보이듯이 학관·이문학관·독축관·제술관은 承文院 소속이다. 승문원은 事大文書와 交隣文書를 맡는 기관이었다.⁹⁵⁾ 그래서 당시 제술관도 사행 중 일본인과 접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관들과 함께 외교 실무를 담당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또한 양국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교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하였다.⁹⁶⁾ 승문원에서는 모두 文官을 쓴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과시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

諸科는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前年 가을에 初試를 보고 그 해 초봄에 覆試와 殿試를 보며, 文科는 通訓大夫⁹⁷⁾이하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초시는 製述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겼고, 복시에서는 製述·講書를 보았다⁹⁸⁾. 이렇게 뽑힌 이들이 관원으로 되어 관직에 재직하고 있다가 사행이 있어 승문원에 차출을 요청하면 승문원에서 정하기도 했으나, 사신이 직접 계청하여 가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⁹⁹⁾

이렇게 하여 선출된 제술관을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통신사행 製述官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사행직명	사행시관직	최종관직	신분
------	----	----	------	-------	------	----

95) 《經國大典》 吏典.

96) 《宣祖實錄》 권204, 39년 10월 임인.

97) 文散階 정3품 1階의 품계명으로,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이라 한다.

98) 《經國大典》 禮典.

99) 예조에서 1607년 사행을 위해 제술관과 사자관을 차출할 때, 제술관과 사자관은 해조에서 정하는 규례가 따로 없고 사신이 으레 계청하여 데려간다고 하며, 전일 자천로·이해룡도 다 사신이 계청하여 데려간 사람들이라 하였다.(《宣祖實錄》 권204, 39년 10월 임자.)

1	1607	楊萬世	學官	吏文學官	吏文學官	(中人)
4	1636	權 佻	吏文學官	護軍	郡守	庶子
5	1643	朴安期	讀祝官	進士	縣監	庶子
6	1655	李明彬	讀祝官	上護軍	郡守	庶子
7	1682	成 琬	製述官	成均館進士	直長	庶子
8	1711	李 磻	製述官	前佐郎	贈戶曹參議	庶子
9	1719	申維翰	製述官	秘書著作郎	奉常寺僉正	庶子
10	1748	朴敬行	製述官	前典籍	郡守	中人
11	1763	南 玉	製述官	前縣監	郡守	庶子
12	1811	李顯相	製述官	奉常寺僉正	郡守	(庶子)

이상의 인물들 중 2·3번째 사행에서는 제술관과 관련된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사행록들에서 그와 관련된 명칭이 보이지 않는 것은 회답검쇄환사가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임진왜란 이후 사행 원역의 구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2·3회에서는 파견되지 않다가 4회 때 일본에서의 國書改作事件이 밝혀지고, 정식으로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문학관이라는 칭호로 사신이 파견되었고, 아울러 각기 三使에 속하는 서기가 파견되기 시작하였다.¹⁰⁰⁾

이들 제술관의 개인적인 성격을 위의 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우선 그들의 관직이 제술관이라는 명칭을 얻기 이전에는 잡직이거나 무반직이었던 데 비해 이후에는 문반직의 관직자가 임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신분이 서자이거나 중인출신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서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682년 사행 이후 사신들의 성격이 문화적 교류의 담당자들로 변화함에 따라서 본래의 외교서한의 제술이라는 임무 외에도 時文唱和의 성격도 가미되어 이후에는 문장에 능한 사람들 위주로 사행에 참여하게 된다. 일본 측에서도 ‘文才가 있는 자’를 요청하여 極擇하는 경우가 많았

100) 장순순, 앞의 논문, p. 15.

다. 그리하여 사행시 제술관의 시문이나 글은 잇따른 요청이 있었고, 후기로 갈수록 문화에서의 우월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 寫字官

사자관도 제술관과 같은 승문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차정하였다. 제술관이 문장을 잘 쓰는 이라면 사자관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후 초기의 통신사행에서는 사자관 외에 書寫라는 원역도 함께 보이는데, 이들이 단순한 필사작업을 했다면 사자관은 글을 쓰는 외에 제술관과 비슷하게 글을 짓는 작업도 함께 했었던 것 같다. 이는 그들이 뒤에 문과 급제자 중 진사 이상인 자들로 구성된 것에서도 그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海神祭를 지내는 과정에서 제술관과 사자관 및 역관의 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일전에 헌관이 종래의 의식에 의하여 모든 집사에는 일을 맡기는데, 나는 撰祝과 讀祝으로 典祀官¹⁰¹⁾을 겸하였다. 書板·執禮¹⁰²⁾·齋郎¹⁰³⁾·祝史¹⁰⁴⁾·執樽¹⁰⁵⁾·撰謠者·左右臚唱·盥洗位는 각각 사자관이나 역관 등 공복을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했다. 모든 군관들은 군복을 입으므로 예법에 구애되어 반렬에 끼이지 못하였다.¹⁰⁶⁾

앞의 職務分擔에서 보건데, 사자관은 서판이나 재랑·찬알 등의 업무를

101) 장례원에 속한 칙임(勅任)이나 주임(奏任)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102) 나라의 제사 때에 홀기(笏記)를 읽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103) 조선 시대에, 제향 때 향로를 받드는 일을 하던 재관.

104) 신을 모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105) 제향(祭享) 때에 술 그릇의 하나인 준뢰(樽罍)의 일을 맡아보던 제관(祭官).

106) 申維翰, 《海遊錄》, 기해년(1719), 6월 6일.

말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자관의 기원도 앞서 제술관 차천로가 사행에 참여했던 그 시기 쯤으로 볼 수 있다. 萬曆 庚寅年에 황윤길과 김성일이 사신으로 갈 때 사신이 啓下에서 인사드렸는데 宣祖가 傳敎하여 이르기를 “왜승은 매우 글자를 잘 알고 琉球의 사신도 또한 일찍이 왔다 갔는데 그대들이 만약 이들과 唱酬하게 되면 서범 또한 서툴게 보여서는 아니될 것이니 그대들은 이에 유념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윤길 등은 깨닫고 곧 사자관 李海龍을 마땅히 임명해야 한다고 하니 상께서는 이를 좋다고 하였다. 이해룡은 명을 듣고 곧 사행하였는데 이로부터 예가 되었다.¹⁰⁷⁾

이후 1607년 사행에서 여우길은 제술관의 요청과 함께 사자관도 누락된 것을 알고 계를 올리게 된다. 그리하여 제술관 1인과 사자관 1인이 각기 임명되었다. 이후에도 사자관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사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그 수도 1원이던 것이 나중에는 2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자관도 제술관과 같은 승문원 소속이었던 관계로 제술관의 차출과 함께 이루어졌다.

각 시기별로 차정되어 사행에 참여했던 사자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통신사행 寫字官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사행직명	사행시관직	인용
1	1607	卞鐵壽	書寫員		경심, 《해사략》
2	1617	李孝男	寫字官	行護軍	이경직, 《부상략》
3	1624	李誠國	寫字官		강홍중, 《동사략》
4	1636	朴之英	寫字官	護軍	김세렴, 《해사략》
5	1643	朴崇賢	寫字官		《통신사등록》
	1643	金義信	寫字官		

107) 《춘관지》下, 通信.

6	1655	金義信	寫字官	前參奉	남응익, 《부상록》
	1655	柳應發	寫字官	前參奉	
	1655	鄭琛	寫字官	부사명	
	1655	尹德容	寫字官	부사명	
7	1682	李三錫	寫字官	參奉	김지남, 《동사일록》
	1682	李華立	寫字官	上護軍	
8	1711	李壽長	寫字官	上護軍	임수간, 《동사일기》
	1711	李爾芳	寫字官	上護軍	
9	1719	鄭世榮	寫字官	上護軍	김흠, 《부상록》
	1719	金景錫	寫字官	上護軍	
10	1748	玄文龜	寫字官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1748	金天秀	寫字官		
11	1763	洪聖源	寫字官	資憲	조엄, 《해사일기》
	1763	李彦佑	寫字官	上護軍	
12	1811	皮宗鼎	寫字官	上護軍	유상필, 《동사록》

전체 사행에서 첫 번째 회답사행만 사행직명이 書寫員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경섭의 《해사록》에 있는 원역좌목에 의거한 것인데, 《춘관지》에서 사자관에 대해 설명해 놓은 부분에 보면, ‘사자관 변철수 1인을 대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변철수도 서사원이 아닌 사자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중 金義信은 1643년 사행과 1655년 사행 두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信使講定節目에서는 매 회마다 ‘善寫者’를 요청하고 있으며, 1655년 사행강정절목에서는 ‘雪峯도 데려올 것을 적어놓고 있는데, 설봉은 김의신의 호이다. 이로 인해 김의신이 다시 한번 파견되었던 것 같다.

그와 동시에 1655년 사행은 사자관이 총 4명이나 파견되어 전후와 비교하면 최대의 인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643년 사행부터 사자관 수가 1원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강정절목에서 ‘儒者·善寫者·書員의 수를 더하라’는 대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사자관 외에 書員도 이때

에는 1인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로 사자관은 거의 고정적으로 2인씩 파견되었으며, 후기 사행으로 갈수록 제술관과 마찬가지로 文才에서 그 기예를 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라) 醫員

의원들이 신사행에 참여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사행 중 원역들의 치료와 타국의 약재를 알아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항상 강정절목에서 ‘名醫’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제술관이나 사자관 등이 객관에서 일본인들의 요청에 글을 쓰고 창화문답을 할 때 함께 일본인들과의 문답에 참여하였다. 胡亂 이전에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1636년 통신사행부터는 의원과 문답한 자료들이 몇몇 남아있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의원들과 창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인삼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의원들과의 필답을 모아 엮은 책인, 《桑韓醫談》·《桑韓垣篋集》·《人蔘譜》 등에서는 인삼의 진위분별법·용례 등에 대해 문답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의원을 선발하는 방법에는 醫科와 取才가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의과시는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式年試와 增廣試에만 있었고 초시와 복시만 실시되었다. 초시는 18인을 선발하는데 上式年 가을에 서울에서 典醫監이 錄名하여 시취하였고, 복시는 9인을 선발하는데 예조가 전의감 提調와 함께 녹명하여 시취하였다. 초시와 복시는 臨文考講의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각 과목은 성적에 따라 通·略·粗로 채점하여 통은 2分, 약은 1分, 조는 반분으로 계산하여 分數가 많은 사람을 뽑았다. 의과 합격자는 일단 전의감의 權知로 배속되는데, 1등은 중8품직을, 2등은 정9품계를, 3등은 중9품계를 받았으며, 이미 품계를 가진 자에게는 그 품계에서 1

계를 더 올려주고, 올린 품계가 응당 받아야할 품계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계를 더 올려주었다. 취재는 4계절 첫 달에 예조가 당해 관사의 제조와 함께 했는데, 臨文이나 誦의 방법으로 하였다.

〈표 15〉 통신사행 醫員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사행직명	사행시관직	인용
1	1607	朴仁基	醫官	治腫教授	경섭, 《해사록》
		辛春男	醫官	惠民直長	
2	1617	鄭宗禮	醫員	前僉正	이경직, 《부상록》
		文賢男	醫員	前奉事	
3	1624	郭 欽	醫員		강홍중, 《동사록》
		黃德業	醫員		
4	1636	白士立	醫員	正	김세렴, 《해사록》
		韓彦協	醫員	前判官	
5	1643	金 浩	醫員	前正	《통신사등록》
		宋擎日	醫員	前主簿	
6	1655	韓亨國	醫員	行參奉	남용익, 《부상록》
		李繼勳	醫員		
		崔 桐	醫員	副司正	
7	1682	鄭斗俊	良醫	前正	김지남, 《동사일록》
		李秀蕃	醫員	前主簿	
		周 伯	醫員	前判官	
8	1711	奇斗文	加定醫員	前直長	임수간, 《동사일기》
		玄萬奎	醫員	前主簿	
		李 渭	醫員	副司勇	
9	1719	權 道	良醫	副司勇	김흠, 《부상록》
		白興銓	醫員	前別提	
		金光泗	醫員	前司果	
10		알 수 없음			
11	1763	李佐國	良醫	閑良	조엄, 《해사일기》
		南斗旻	醫員	前正	
		成 灝	醫員	副司猛	

12	1811	金鎮周 朴景郁	良醫 良醫	前司勇 副司勇	유상필, 《등사록》
----	------	------------	----------	------------	------------

위의 표와 같이 매 사행마다 선발된 의원들 중에서 양의를 제외한 의원 2명은 각각 전의감에서 1인, 혜민서에서 1인을 선발하였다. 양의는 의술에 뛰어난 자를 선발한 것이므로 의술 능력 외에 해당 시는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전의감은 의약을 闕內需用에 공급하는 일과 賜與하는 일을 맡았고, 혜민서는 의약과 서민의 질병을 救療하는 일을 맡은 곳이었다. 이들 중에서 전의감의 의원이 더 높은 직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의감은 종9품인 參奉부터 정3품인 正까지 직을 맡고 있었던 반면에, 혜민서에서의 의원은 종9품의 參奉부터 종6품의 注簿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원의 수가 양의를 포함하여 3인이 된 것은 1655년 사행 때부터였다. 이전 사행에서는 의원들을 데리고 가기는 했어도 名醫를 데려오라는 조건만 있었지 따로 ‘良醫’라는 명칭은 정립되지 못하다가, 1655년 의원을 1인 더 파견하게 되고, 그 이후인 1682년 사행부터는 아예 良醫라는 원역 명칭을 만들어 차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畫員

일본 사행의 경우 화원을 대동하는 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듯 하다. 1865년(高宗 2) 편찬된 《大典會通》의 〈禮典〉, 〈雜令〉 조를 보면, ‘原典’ 즉, 1484년(成宗 15)에 편찬된 《經國大典》에 전거하여 ‘通信使一行 堂上譯官三員 堂下譯官九員 兩醫司醫員二員(或加定一員) 寫字官二員 畫員一員 并差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 기존의 법서들을 정리하여 펴낸 종합 법전인 《大典會通》의 찬자는 일본 사행의 화원 대동 규정이 조선초기부터 있어온 것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에 규정되어 있듯이 도화서는 禮曹에 소속된 종6품 아문이었으며 국가가 필요로 했던 일체의 圖畫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회원들은 이 곳에서 차출되어 사행에 참여하였다.

仁祖, 孝宗연간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온 회원들이면서 동시에 교수의 직함을 가진 자들로서 李彦弘, 李起童, 金明國, 韓時覺 등이 보인다. 그 후 肅宗 때의 金九成, 咸梯健, 盧泰鉉, 英祖 때의 金良臣, 張息周 등도 회원으로서 교수였다. 書學教授는 전문기술관인 도화서에 畫學生徒가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講畫者로서 회원 가운데 유능한 자가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朝·日간의 회화 교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수행 회원들은 “能力者極擇”의 원칙 하에 畫技가 뛰어난 도화서의 前·現職 요원이면서 渡日 경력이 있는 회원 집안이거나 使行의 실무를 맡았던 譯官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차출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하면서, 선진국으로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과시하고자 했던 조선왕조의 대일 관계의 한 방책으로 이해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교수직이면서 통신사절에 뽑힌 회원들은 그 실력이 매우 탁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¹⁰⁾

사행 회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甲申使行(1763)의 회원 김유성에게 일본지도 改正本을 그리게 하고, 또 동래부 소속회원으로 동행했던 변박에게 대마도지도와 일본의 지리도형을 모사케 한 일이다.¹¹¹⁾ 그리고 변박에게는 淀浦에서 본 스스로 돌면서 물을 퍼서 통에 부어 성중으로 보내는 水車모양의 물레방아를 그대로 그리게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지도나 기물을 모사하는 繪事는 말이나 글로 형용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시각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지닌 繪圖로서 기록하는 書習으로 조선시대 회원들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110) 朴貞俊, 앞의 논문, pp. 10-11.

111) 조엄, 《海槎日記》 1월 24일조, 10월 10일.

파견되는 나라의 지형 등을 그리는 것은 북경의 蘇軾이 고려 사신의 왕래가 중국에 해롭다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고려 사신들은 화원을 데리고 와서 중국의 산천을 그려가는데 이것은 안보상 매우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상대국의 정세를 파악하고 국방적 또는 군사적인 대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정세 파악과 국방적 대비의 목적은 1592년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더욱 중요했었기 때문에 1590년의 庚寅사행 이후로 이러한 제도를 정례화시키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표 16〉 통신사행 畫員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사행직명	사행시관직	인용
1	1607	李弘虬	畫員		경섬, 《해사록》
2	1617	柳成業	畫員	行司果	이경직, 《부상록》
3	1624	李彦弘	畫員		강홍중, 《동사록》
4	1636	金明國	畫員		김세렴, 《해사록》
5	1643	金明國	畫員		《통신사등록》
		李起龍	畫員		
6	1655	韓時覺	畫員	副司果	남용익, 《부상록》
7	1682	威梯健	畫員	前教授	김지남, 《동사일록》
8	1711	朴東普	畫員	副司果	임수간, 《동사일기》
9	1719	威世輝	畫員	副司果	김흡, 《부상록》
10	1748	李聖旻	畫員	主簿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11	1764	金有聲(+번박)	畫員	前僉使	조엄, 《해사일기》
12	1811	李義養	畫師	副司勇	유상필, 《동사록》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원래 사행에 파견된 화원은 1인씩이다. 하지만 1643년에 예외가 보이는데, ‘김명국’이다. 김명국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4회 때의 사행에 이어 5회 때에도 파견되었다. 하지만 1643년 사행 때 인

삼 밑때에 가담하여, 이후 다시 화원의 인원수가 1인으로 줄어들게 되었다.¹¹²⁾

조선 후기의 통신사행은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짙게 띠고 時文書畫에 재능을 지닌 문화지식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근세 한·일간 회화 교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수행 화원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일본측의 요청에 응하면서 自國의 문화적 자부심을 과시하고 그 외연적 확산을 통해 양국 간의 평화상태를 존속시키고자 한 조선왕조의 ‘南邊事’로 지칭되던 현실대응적 對日관계의 한 방책으로 이해된다.¹¹³⁾

(바) 軍官

《경국대전》에 의하면, 군관은 각 도의 主鎮·巨鎮·諸鎮에 배치되어 鎮將을 隨從 보좌하고, 군사를 감독하는 지방군 운용상의 기간적 존재였다. 군관은 무과합격자나 下番의 別侍·甲士 중에서 그 鎮將이 스스로 추천하여 口傳에 의해 임명받은 다음 率行하여 隸下에서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口傳軍官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군관은 상비병력이 없는 無軍鎮에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兩界의 경우에는 주진에 각각 10명씩 배당되고(그 밖의 主鎮에는 5명임), 上番의 별시위와 감사는 물론 長番인 내금위까지도 節度使가 군관으로 수행시킬 수 있게 하는 등 수나 질 모두 월등하여 군사적으로 중요시된 바를 군관의 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군관은 武科를 실시하여 시취하였는데, 초시와 복시에서 실기시험 격인 무예의 정도를 分數로 점수를 매기고, 講書臨文도 시험하였다. 무예 시험 과목은 步射¹¹⁴⁾·騎射¹¹⁵⁾·騎槍¹¹⁶⁾·擊毬¹¹⁷⁾가 있었다. 이중 사행에서는 6

112) ‘《춘관지》下’ 화원 설명에, 왜인이 말하길, ‘전날의 화원은 중가의 물자를 탐내고 다만 상인이 청하는 데에만 따랐으므로 감정이하가 구하는 것에 응하기를 기질하여 사람들에게 타기가 되었다’ 하니 엄하게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113) 홍선표, 앞의 책, pp. 15-16

냥의 활을 잘 쏘는 사람과 평궁을 잘 쏘는 사람 각 1원은 병조에서 시험을 봐서 임명하여 보냈다. 때로는 일본 측에서 활 쏘는 도구를 가지고 올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험을 거쳐 뽑힌 군관들은 통신사로 뽑혀 일본에 가면 도주 및 관백에게 불러가서 무예를 선보였다.

잡예가 있는 군관 외의 나머지는 대부분 삼사가 개별적으로 임명하였던 것 같다.

회답사(回答使)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은 지 한 달이 다되었으나 부사(副使)가 아직도 차출되지 않았고, 원역(員役)도 차정(差定)되지 않아 출발 준비에 전혀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발행(發行)할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장선(裝船 : 배에 짐을 실음)에 관한 한 가지 일은 가장 긴절한 일입니다. 마땅히 견고하고 치밀하며 정제되어, 완전치 못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곧 배에 오를 수 있으며, 또 바다에서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지난번 병오년의 사행(使行)에 있어서 모두 패선(敗船)이 될 뻔한 환난이 있었다 하니 이것이 극히 우려됩니다. 본도에서 비록 통영(統營)의 각 영(營)으로 하여금 조선(造船)의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하는 사람이 용심(用心)하지 않는다면, 신의 일행이 배에 도착하여 임시 수개(修改)하는 군색하고 난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리포 만호(甫里浦萬戶) 정충신(鄭忠信)은 정명(精明)하고 상세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마침 부산(釜山)의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선 등 여러 일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신의 군관(軍官)으로 데리고 가게 한다면 그는 돌아 올 때까지 끝까지 성의를 다할 것이니 일이 매우 편리하고 도움될 것입니다. 또 데리고 갈 군관 6인 가운데 4인은 신이 천망하겠으며 그 나머지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선전관의 실직 유무를 막론하고, 계척이 있고 장래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관이라 호칭하고 데리

114) 보사는 길거나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을 말한다. 240보의 木箭을 사용하고, 80보의 鐵箭, 130보의 片箭을 사용하는 보사가 있다.

115)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한다.

116)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것인데, 騎槍勢라고도 한다.

117) 일반적으로 馬上에서의 무예를 단련하기 위해 시험종목으로 행해진 騎擊毬를 말한다.

고 가면, 다만 신의 일행에 규율이 유지될 뿐 아니라 직접 경력을 쌓게 하여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익혀 알도록 한다면 앞으로 남변(南邊)의 일을 맡게 될 때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전관은 곧 근시(近侍)하는 신하입니다. 군관으로 계청함은 극히 미안스런 일이나 지난 경인년에 김약운(金若胤)·황진(黃進)·이규문(李奎文)은 모두 선전관으로서 데리고 갔음을 신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또 신의 군관 우상중(禹尙中)은 새 출신(出身 : 문무과의 급제자)으로서 북쪽 변경에 가도록 되어 있으니 병조로 하여금 제방(除防 : 변경 근무 면제)하여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습니다.¹¹⁸⁾

위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정사가 6인의 군관 중 4인은 자신이 직접 정하게 해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607년 사행에서 여우길이 자신이 데려갈 군관을 선정하여 아뢰기를, ‘신이 데려갈 군관으로, 훈련원 첨정 蔡謙進과 武臣兼宣傳官 申景濱·羅仲道·鄭滋과 포수겸사복(兼司僕) 愼忠善·崔愛立과 別武士 韓士逸 등이 自望하였는데, 이들이 朝官·포수·별부사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하여 윤택한 적이 있다. 이 때는 회답사행 때로 정사가 데리고 가는 군관은 총 6인이었는데, 당시 정사가 6인을 모두 택정하여 아뢰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두 번의 회답사 때에도 정사와 부사의 군관은 6명 혹은 7명으로 그 수가 일정치 않았는데, 1636년 통신사행 때에는 정사와 부사가 각각 5명, 종사관이 2명으로 정해졌다. 그와 함께 1643년 사행의 강정절목에서는 처음으로 기예가 있는 군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후를 기준으로 해사에서 기예가 있는 군관들을 택정하면, 나머지 군관은 삼사의 선택에 의해 차정되었던 듯 하다.

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삼사 개인에게 있었겠지만, 《변례집요》의 信使 조에 보면, ‘삼사신의 군관은 모두 명신으로 이미 州縣의 관직을

118) 《국역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1617) 2월 9일.

지낸 자를 데리고 오므로 수륙의 연도를 지날 때에는 각별히 우대하고 머무름 때에는 사신의 舍館 옆에 정갈하게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군관이라도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명신으로 선정하여 차출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인부와 말을 整齊하고, 격군 등의 하부 원역들을 관리·검열하였으며, 관백 앞에서 활쏘는 기예 등을 선보였다. 원래는 육량전 등의 활을 직접 가지고 오게 하여 시험을 하기도 했는데, 1763년 사행 때에는 활의 장대함 때문에 인가를 다칠까 염려하여 일본 측에서 그만두기를 청하였다.¹¹⁹⁾ 이런 것 외에도 군관은 당시의 신무기나 지도 등을 구해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1748년 사행 때 종사관이 부방(부사 소속) 군관에게 阿蘭의 화포와 陣法圖를 구해오게 한 적이 있다.¹²⁰⁾ 즉 사행에서 군관은 대외적으로는 기예를 과시하고 군기를 알아보는 동시에 안으로는 수군 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함께 담당했던 것이다.

(사) 書記

서기는 군관의 예에 의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원래 사행에서는 종사관이 여러 일들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가서 전하였으므로, 서기는 이전 회답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國書改作事件이 밝혀지면서 1643년 사행에 이르러서는 삼사에게 각각 서기가 1명씩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119) ‘지난번에는 더러 육량전을 시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군관들이 궁시를 가지고 가는데, 저들이 그 장대함을 보고 인가를 다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만두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趙職, 《海槎日記》, 갑신년, 3월 6일)

120) 曹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무진년(1748), 6월 12일.

〈표 17〉 통신사행 書記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사행직명	사행시관직	인용
4	1636	文弘績	書記(상사)	進士	김세렴, 《해사록》
		文 邲	書記(부사)		
5	1643	알 수 없음			
6	1655	裴 穢	書記(정사)		남용익, 《부상록》
		金自輝	書記(부사)		
		朴文源	書記(증사관)		
7	1682	林 梓	書記(부사)	副司果 進士	김지남, 《동사일록》
		李聘齡	書記(증사관)		
8	1711	洪舜衍	書記(정사)	奉常判官	임수간, 《동사일기》
		嚴漢重	書記(부사)	前縣監	
		南聖重	書記(증사관)	副司果	
9	1719	姜 栢	書記(정사)	進士	김흡, 《부상록》
		成夢良	書記(부사)		
		張應斗	書記(증사관)		
10	1748	李鳳煥	書記(정사)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柳 逅	書記(부사)		
알 수 없음					
11	1763	成大中	書記(정사)	前察訪	조엄, 《해사일기》
		元重擧	書記(부사)	前奉事	
		金仁兼	書記(증사관)	進士	
12	1811	金善臣	書記(정사)	副司勇 通德郎	유상필, 《동사록》
		李明五	書記(부사)		

이들은 처음에는 중인 출신자를 중심으로 과견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신묘년(肅宗 37, 1711)에는 신사 趙泰億이 제하기를 “전례에는 중인을 데리고 갔으나 지금은 청컨대 前銜 문관 중에서 문한을 잘하고 지식이 있는 자를 골라서 데리고 가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하게 하였다. 1719년 사행에서도 서기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변례집요》 信使 조에 우리가 써 보낸 절목(自我書給節目)에는 ‘삼사의 서기는 혹 大科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 명망 있는 자를 데리고 갈 것이므로 특별히 더욱 잘 대접한다’고 하여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711년 이후를 기준으로 중인 출신자들보다 진사 이상의 자들을 차출한 듯 하다. 서기 외에 향서기관 직명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중인 출

신에서 선출하면서 삼사의 서기는 그보다 출신이 높고 문헌에 뛰어난 자들을 선정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기들은 사행 중의 일들을 세세히 기록하여 이후에 사행록을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출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헌과 지식이 뛰어난 자들인 동시에 進士 이상으로 구성된 자들이라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에서도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아) 별파진

별파진은 무관잡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아분에 소속되어 火砲를 주로 다루었고, 火器藏放과 火藥庫의 입직을 맡았다. 인원은 御營廳에 160인, 守禦廳에 385인, 摠戎廳에 100인, 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사행 때 별파진은 軍器寺에서 차출하였다. 군기서는 태종 14년에 군기감을 개칭한 것으로 병기·화약을 제조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며, 관원은 제조 2명 가운데 병조판서나 참판 가운데에서 1명이 되고 또 1명은 무장 가운데에서 선발한다. 그 밖에 정·부정·첨정·별좌·판관·別提(정·종6품)·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 등이 있었다.

〈표 18〉 통신사행 별파진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2	1617	崔義弘 鄭義逸	이경직, 《부상록》
3	1624	劉太吉 金信宗	강홍중, 《동사록》
4	1636	金景逸 黃德吉	
5	1643	朴義龍 李禮男	《통신사등록》
6	1655	尹介重 金見希	남용익, 《부상록》

7	1682	李時馨 韓俊一	김지남, 《동사일록》
8	1711	金斗明 嚴漢佑	
9	1719	金世萬 尹希哲	김흡, 《부상록》
10	1748	알 수 없음	
11	1763	許圭 劉斗億	조엄, 《해사일기》

위의 표에서 보면, 별파진은 매회 2인씩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포수들의 총이나 취고수 중 삼혈총을 들고 가는 원역의 총 같은 화약류 무기를 관리했던 것 같다. 1748년 사행 때에는 화포수가 화약을 찢어 말릴 적에 잘못하여 화기에 닿아서 그가 묶는 방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¹²¹⁾ 이를 보더라도 당시 별파진이 화기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했음을 알 수 있다.

별파진은 명문가 출신의 무관은 아니었으나, 군관이 겸직했으므로 상관에 속했다. 즉, 화약관련 무기에 있어서는 포수나 삼혈총수 등의 군직보다 우위에 있어 관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상관의 직이 주어진 듯 하다.

(자) 馬上才

마상재는 임진왜란 때에 시작되어 각 營門의 軍馬사이에 시행했던 기병 무예로, 말 위에서 여러 군묘기를 부리는 것이다. 이들은 비록 才人이지만, 무과 시취시 달리는 말 위에서 허수아비를 화살로 쏘아 맞히는 騎射와 창을 쏘아 목표물을 맞히는 騎槍 과목 등을 실제 묘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재인이면서도 중하관직에 들지는 않았다. 또한 《통신사등록》에서 마상재를 차출 한 해사를 보면 모두 訓練都監에 속해 있는 것도 볼 수 있

121)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무진년(1748), 4월 27일.

다. 즉, 이들은 무반 잡직 중 하나로, 그 기예 때문에 사행에 동행하였다. 하지만 才人인 관계로 차관에 속했다.

마상재인은 차관이었지만, 사행에서 기예를 보여주며 그 우월감을 과시하는 데에는 다른 군관들 못지않게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마상재가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1636년 통신사행 이었던 것 같다. 그 이전 사행좌목에서는 명칭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1636년 사행좌목에서 그 이름이 처음 보이고 있다. 또한 1636년 강정절목에서도 ‘馬才人’을 거느리고 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이후로 사행에 참여한 것 같다.

〈표 19〉 통신사행 馬上才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인용
4	1636	白天龍 崔貴賢	김세렴, 《해사록》
5	1643	方繼男 姜承善	
7	1682	吳順白 邢時挺	김지남, 《동사일록》
8	1711	李斗興 池起澤	임수간, 《동사일기》
9	1719	姜相周 沈重雲	김흡, 《부상록》
10	1748	印文調 李世蕃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11	1763	鄭道行 朴聖遇	조엄, 《해사일기》

표에서도 보이듯이 마상재인은 정식 통신사행인 1636년부터 그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6번째 사행에서는 마상재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사행에 참여했던 남용익의 《부상록》에 있는 좌목에서도 마상재의 명칭과 인원수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당시 사행강정절목을 보더라도 ‘마상재는 이번 길에는 데려오지 않고 악공은 다만 한두 사람만 데리고 온다.’고

하여 1655년 사행 때에는 마상재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듯 하다. 또한 마지막 사행인 1811년 사행에서도 마상재인은 파견되지 않았다. 이 때에는 易地通信인 관계로 대마도에만 사신을 파견하였고, 기타 다른 인원수도 대폭 줄이면서 변동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변동의 일환으로 마상재인도 파견되지 않았다.

(차) 典樂

전악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掌樂院의 잡직 정·종6품직의 직명으로 체아직이다. 원래 太宗 9년(1409)에 雅樂·典樂署의 職事號를 정할 때에는 모두 從職으로 각기 종5품·종6품이던 것이 정·종6품으로 고쳐졌다. 즉 양인인 악생은 정6품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천인 출신인 악공은 종6품까지 밖에 오르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음악은 雅樂·唐樂·鄉樂으로 구분되는데,¹²²⁾ 당악과 향악은 다 俗樂에 속하므로 조선시대의 음악은 크게 아악¹²³⁾과 속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음악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취재에 의해서 선발했는데, 악생 아악 중에 三成¹²⁴⁾과 登歌¹²⁵⁾·文武舞¹²⁶⁾를 시험하

122) 《樂學軌範》序.

123) 아악은 12율 7성이 쓰이며, 아악서(1392년에 솔치)에서 관장하였는데, 아악서는 세조 3년(1458)에 전악서를 합쳐 장악서로 되었다. 그 후 성종 원년(1470) 이전에 장악서는 장악원으로 바뀌어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124) 아악(雅樂)을 연주할 사람을 취재(取才)할 때 황종궁(黃鍾宮)·대려궁(大呂宮)·태주궁(太簇宮)·협종궁(夾鍾宮)·고선궁(姑洗宮)·중려궁(仲呂宮)·유빈궁(賓宮)·임종궁(林鍾宮), 이척궁(夷則宮)·남려궁(南呂宮)·무역궁(無射宮)·응종궁(應鍾宮)·송협종궁(送夾鍾宮)·송림종궁(送林鍾宮)·송황종궁(送黃鍾宮) 등 15곡 가운데 3곡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125) 문묘(文廟)나 종묘(宗廟)같은 제향(祭享)에서 대궐의 댕돌 위에서 연주하는 당상(堂上)의 악(樂)을 말하며, 댕돌 아래에서 연주하는 당하악(堂下樂)을 헌가(軒架)라 하였다. 《經國大典註解》에 등가(登歌)는 가(歌)로 구성되어 있고 댕돌 위에서 연주한다고 하였다.

고, 악공 시험에 唐樂·鄉樂·還宮樂의 여러 과목을 시험했다. 또한 編鐘·編磬·笙

·和·埙·琴·瑟·龍管·歌舞 등을 때때로 시험했다.

장악원에서 선별하여 차정된 자들은 매년 사행에서 도주나 관백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사행에서 피로에 지친 사행원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역할도 동시에 했다. 이들은 하관직에 있던 풍악수를 관리하며, 치제가 있을 때에는 관련된 음악을 연주하였다. 또한 연회 때에도 전악 및 악수들은 빠지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였다.

〈표 20〉 통신사행 典樂 일람표

사행회차	년도	이름	사행직명	인용
4	1636	洪鳳元	典樂	김세렴, 《해사록》
		朴許弄	典樂	
		安畚孫	典樂	
		全君尙	典樂	
		丁潤璞	典樂	
		薛養立	典樂	
5	1643	金磨瑄	典樂	《통신사등록》
		薛養立	典樂	
		林許美	典樂	
		趙應立	典樂	
		金龍金	典樂	
6	1655	張一春	樂工	남용익, 《부상록》 《통신사등록》
		金夢述	樂工	
		薛養立	樂工	
7	1682	尹萬碩	典樂 (등록-樂工)	김지남, 《동사일록》 《통신사등록》
		金夢述	典樂 (등록-樂工)	

126) 종묘(宗廟)나 문묘(文廟) 등의 제향(祭享)에서 추는 춤으로 문부(文舞)는 부생(舞生)이 문관(文官)을 상징하는 직(翟)을 오른손에, 약을 왼손에 들고, 무부(武舞)는 부생(舞生)이 무관(武官)을 상징하는 척(戚)을 오른손에, 간(干)을 왼손에 들고 추는 일부(佾舞)이다.

8	1711	金碩謙 金世璟 (등극-金世京)	典樂 典樂	임수간, 《동사일기》
9	1719	威德亨 金重立	典樂 典樂	김흡, 《부상록》
10	1748	2인 파견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건록》
11	1763	金泰成 鄭德龜	典樂 典樂	조엄, 《해사일기》

악공이라도 전악까지 오르기에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야 했던 관계로 전악은 장악원에서 2인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행시 같은 전악이 여러 차례 파견된 경우를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薛義立 같은 경우는 4·5·6회 3차례 모두 파견되었으며, 金夢述 같은 경우도 6·7회 2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화원인 김명국이나 사자관 김의신 같은 경우도 2차례씩 밖에 파견되지 못했고, 다른 잡예 기능 보유자도 연이어 파견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전악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 여러 번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악원의 규정된 전악 인원수가 2인이었기 때문에, 사행시 선발되어 가는 전악의 수는 2인이다. 하지만 1636년과 1643년의 사행에서는 총 6인의 전악이 차정되었고, 1655년 사행에서는 3인이 차정되었다. 이것은 이들의 명칭이 악공이라고도 불렸다는 점에서 유추해 봐야 될 것 같다.

1636년 정식 통신사 명칭이 사용되었던 사행에서는 ‘男樂’을 데려오라는 강정절목의 내용만 보고, 그 인원수를 정한 것이 악공과 합하여 6인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음 사행에서도 악공을 데려오라는 언급은 있었으나 인원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관계로, 전례에 의해 그대로 6인을 데리고 간 것 같다. 그러다가 1655년에는 ‘악공은 한 두사람만 데리고 오라’는 강정절목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수를 1인 더하여 3인을 동반한 것 같다.

이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전악과 악공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다.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통신사동록》과 사행록에서 같은 사람을 악공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전악이라고 기록하기도 한다. 또한 사행록 중에서는 악생이라고 기록한 부분도 보인다. 당시 장악원 내의 전악은 총 2인으로 사행에 참여했던 인원수만큼 3인이나 6인이 될 수 없다. 즉, 사행에 참여할 때는 삼사신이 假銜을 수여받는 것처럼 악공이나 악생들을 인원수에 맞춰서 명칭만 전악이라고 한 듯 하다.

(카) 理馬

이마는 사복시의 정6품직의 하나이다. 이 관직의 발생 연혁은 자세하지 않으나 사복시가 고려 말에 설치된 이래 잡직으로 安驥·理驥·馬醫·牽馬陪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나타나지 않고 조선 초기에 처음 언급된 것으로 보아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世祖 4년(1458)에 사복시 제조가 이마의 고생을 아뢴 뒤 1년에 한 번 주는 녹을 지난날에 2번 주는 녹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1458년 이전에는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나 《경국대전》에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世祖 때는 정6품이었는데, 이때 都提調의 狀啓로 7품의 별체아를 하나 더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大典通編》과 《大典會通》에 의하면 품계와 구성원에 차이를 두고 6품이 1인, 8품이 2인, 9품이 1인으로 모두 체아직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漢城에 입번하여 장기간 머무르면서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을 담당하였다.

사행에서 이마는 1인으로 대마도에서 먼저 일본 본토로 건너가 사신들이 탈 말을 점검하고 관리하였던 것 같다. 大坂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로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육로를 이용하였던 관계로 사신들이 말을 타고 가는 일은 필수였던 것 같다. 결과 이마는 먼저 육로 행렬이 이

어지는 곳에 도착해 말을 짐검해야 했던 것이다.

〈표 21〉 통신사행 理馬 일람표

사행순번	년도	이름	사행직명	인용
4	1636	韓天祥	理馬	김세렴, 《해사록》
5	1643	金得信	理馬	《통신사등록》
6	1655	朴弘遠	理馬	남옹익, 《부상록》
7	1682	朴戒漢	理馬	김지남, 《동사일록》
8	1711	安英敏	理馬	임수간, 《동사일기》
9	1719	金男伊	理馬	김흡, 《부상록》
10	1748	張次成	理馬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11	1763	張世文	理馬	조엄, 《해사일기》
12	1811	白起福	理馬	유상필, 《동사록》

회답사 때에도 이마가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행록 내용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1636년 사행부터이다. 《통신사등록》에서도 사행 전에 원역들의 직성명을 요청할 때, 삼사부터 이마까지의 직성명을 우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1636년 사행 때부터는 확실하게 이마가 파견된 것 같다. 사실 1636년 사행 원역좌목에서는 이마의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행록 내용 중에 ‘이마 韓天祥·별과진 金景逸과 黃德吉이 국마를 끌고 먼저 떠났는데,.....’¹²⁷⁾라고 하여, 이마 한천상이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監營別 差定

통신사행 원역 차정 시 해사에서 별도로 차정하는 사람들 이외의 모든

127) 金世濂 《海槎錄》, 병자년(1636) 10월 22일.

이들은 대부분 영남지역 감영과 통제영¹²⁸⁾에서 선발하였다. 많은 인원이 대부분 군직을 함께 띠고 수행했으므로, 수군이라는 명목으로 차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행장에 들어있는 왜인의 선물을 귀국하는 행장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따라온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생각하니, 여섯 배의 격졸과 기수·취수·소동의 무리들이 역시 우리 영남에 사는 사람들로써, 이번 걸음에 달고 쓴 것을 같이 한 자들이므로 다 불러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다만 사신이 준 몇 가지 물품 및 내가 산 한당서 백권과 큰 칼 한 갑만은 남겨 두었다.¹²⁹⁾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3척의 기선과 3척의 복선에 있는 격졸과 기수·취수·소동의 무리들이 영남인들 이라 하고 있어, 사행에서 하부 원역을 구성했던 이들 대부분은 출항지인 부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던 영남인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사행 원역 차정시 수가 많은 원역들은 선발해서 이동할 때 불편이 많아 부산과 가까운 道에서 사람들을 차출한 듯 하다. 임진왜란 이전 成宗 10년(1479)에 통신사행 조목을 아뢰었던 것을 살펴보면, ‘선장과 취라치 등은 本道에서 가려 뽑고, 나장은 좌수영 및 우수영에서 뽑으며, 격군은 諸浦에서 전례에 의해 간택하게 한다’¹³⁰⁾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통신사가 파견되었을 때부터 하부 원역들은 남쪽의 감영에서 차정하였던 것 같다.

이는 임란 후 회답사가 처음 파견되었을 때에도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1607년 사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統制使 李雲龍이 치계

128) 통제영은 1593년 삼도수군통제사 직제를 새로 만들어 전라좌수사가 겸임한 것에서 비롯된다. 통제사의 본영을 삼도수군통제영 또는 통제영·동영이라 약칭했으며, 왜란 당시 초대통제사로 제수된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한산진영이 최초이다.

129) 申維翰, 《海遊錄》, 경자년(1719) 1월 1일.

130) 《成宗實錄》 권100, 10년 1월 정축.

하기를, “사신을 빨리 차출하여 행장을 갖추고 대령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갈 서계와 물건 및 일행의 여비 등의 항목을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여 준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타고 갈 선박·格軍·什物·行糧 등과 대동하고 갈 하인 등은 경상 감사와 통제사¹³¹⁾에게 명하여 경인년의 예에 의하여 미리 정제토록 할 것으로 行會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 된다고 하였는데 ‘윤희한다’는 전교를 받았다. 그러니 啓辭의 내용대로 살펴 시행하되, 관문 내의 선척은 통제영에 분정하고 격군·집물·행량과 대동할 인원은 監營에 分定하니 급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하여 해사에서 차정하는 이외의 원역들과 선박·격군·하인 등은 경상 감사와 통제사에게 명했다고 하여 준비과정에서 하삼도 일대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조건에 부합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차정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 船將·卜船將

사행에 필요한 배는 모두 6척이었는데, 대선이 2척, 중선 2척, 소선이 2척이었다. 그 중 대선 2척과 中·小船 각 1척은 통영에서 만들고, 중·소선 각 1척은 좌수영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 사행시 기선에는 정·부사와 총사관이, 복선에는 복물을 나누어 실으며 당하역관이 각각 2원씩 타고, 일행 원역이 나누어 승선하였다.¹³²⁾

이 6척의 배를 선장들이 운행하였는데, 임진왜란 이전에 本道에서 재능

131) 삼도통제사·삼도수군통제사라고도 한다. 경상·전라·충청도 등 3도의 수군을 지휘 통솔한 삼남지방의 수군 총사령관이다. 통제사는 정3품 수군절도사보다 상위직으로, 각 도의 지방행정의 최고직인 관찰사와는 같은 품계였으나, 그보다 상위 품계에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32) 《중정교린지》 제5권, 통신사행.

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率行했던 것처럼 임란 이후 사행에서도 해당 도에서 차정했던 것 같다. 기선장과 복선장의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사행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1719년 사행 때에는 기선장 3명 중 부산이 2명·좌수영이 1명이고, 복선장 3명 중 좌수영이 1명·부산이 1명·동래가 1명이었다.¹³³⁾ 1763년 사행 때에는 기선장 3명과 복선장 1명이 동래, 복선장 2명이 부산출신이었으며,¹³⁴⁾ 1811년에는 기선 2척 복선 2척 중 기선장 2명과 복선장 1명이 부산, 복선장 1명은 좌수영 출신이었다.¹³⁵⁾

즉, 모두 현재 부산 지역인 부산·동래·좌수영 출신의 선장들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차출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장교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배에서 격군 외 기타 하급 원역들을 잘 통제할 수 있었다. 하급 원역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은 사행의 행렬에 따른 이유도 있다. 즉 해로를 통해 大坂까지 들어온 원역들은 그 이후부터는 육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6척의 배는 삼사 및 일부 원역들이 국서전달 및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 원역들이 배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 남겨지는 인원은 약간의 격군을 포함하여 1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각 선장이 이들을 통제하려면 그만큼의 권위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장들은 해로에 익숙한 자들임에는 물론이고, 다른 원역들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지니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¹³⁶⁾

(나) 陪小童

133) 김흡, 《扶桑錄》, 1719년.

134) 조엄, 《해사일기》, 삼사일행록, 1763년.

135) 유상필, 《동사록》, 1811년.

136) 배에서는 선장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소동은 대부분 영남 지역 출신으로 삼사와 당상역관 및 제술관에게 소속되어 시중을 드는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삼사에게 각각 4명, 당상역관에게 각 2명, 제술관에게 1명이 배속되었다. 이들의 출신이나 성격은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通引’이라고 불렸다¹³⁷⁾는 데에서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인은 원래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守令의 신변에서 呼召·使喚에 응하던 이속이다. 지방관청과는 달리 중앙에 배속되어 이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은 청지기(廳直)라 하였다. 통인은 경기도와 영동지방에서 불리던 칭호로, 경상도·전라도 등 下三都에서는 貢生, 황해도·함경도 등지에서는 硯直이라 호칭되었다. 그리고 하삼도 등지의 이속들은 吏胥의 자제들이, 영북 등지는 公奴의 자제들이 지원하여 직을 맡았다. 이들은 사환의 일을 하였지만, 특히 향리의 자제들은 아버지와 자신이 가까이 하는 수령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노비 등을 뇌물로 주어 신역을 면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사행에 참가하였던 소동들은 하삼도 지역 출신이므로¹³⁸⁾, 이들은 公奴가 아닌 吏胥의 자제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하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에서도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흔히 소동이라 하면 말 그대로 성인이 안 된 어린 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이들도 있었겠지만 성인이 된 자들도 있었던 것 같다. 1763

137) 저녁에 대관에 머문 선장들의 고목(告目)이 들어왔는데, 곧 초역휴날 부친 것이었다. 삼방 수역 통인 김한중(金漢仲)을 본병(本病:완치되지 못하고 때때로 도지는 병) 때문에 배에 머물러 두고 왔는데, 그 병이 점점 더해서 끝내 죽었다 하니, 들으며 몹시 참혹하고 가엾다. 이는 동래 초량에 사는 소동인데, 만리길에 사신을 따라 왔다가 살아서 환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趙曦, 《海槎日記》, 갑신년-1763, 2월 19일.)

138) 당시 소동들의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사료는 1719년 사행 때 사료인 김흡의 《부상록》이 있고, 조엄의 《해사일기》와 남옥의 《일관기》도 있는데, 모두 1763년 사행 때의 사료이다. 이에 의하면 소동들은 대부분 대구·동래·부산·좌수영·밀양·김해·창녕·영천 등에서 차출된 이들로 출신지가 하삼도 지방임을 알 수 있다.

년 사행 때 ‘대구 통인 白泰隆, 동래 통인 金大振·鄭重僑, 김해 통인 裴尙泰 등 네 사람이 갓 쓰기를 원하므로 허락하였다.’¹³⁹⁾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이들은 원래 갓을 쓸 나이가 된 자들인데, 사행 때에는 소동이라는 이름으로 차출된 듯 하다.

이들은 통인으로서의 원래 임무가 호소·사환이었으므로, 사행에서도 그런 일들을 담당했다. 해당 소속관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 아주 어린 소동은 악공들이 풍악을 울리면 거기에 맞춰 춤을 추면서 눈요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소동은 글이나 그림에 재주가 있는 자도 있어 일본인이 요청하면 곧잘 그림이나 글을 지어 주기까지 했다.

(다) 都訓導

조선 후기 당시 경상도 지역에 파견된 훈도의 총수는 55인이었다. 이들 중 삼사의 권한 하에 해당 감영 내에서 도훈도를 차출하였던 듯 하다. 그 예로 1763년 사행 때 도훈도로 갔던 ‘최천중’을 들 수 있다.

천중은, 내가 경상도 감영에 있을 적에 신임하던 장교로, 사람됨이 순실하고 말은 일에 부지런하며 군무에도 밝았다. 역관 崔壽仁과 통인 白兌隆·급창 翠夢은 다같이 대구 사람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시신(최천중의 시신)의 시신을 거두는 일을 보살피게 하고,¹⁴⁰⁾

위의 글에서처럼 최천중은 경상도의 대구에 있던 도훈도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를 차정한 이유를, 조엄은 ‘이번 사행에 그가 남단까지 문안을 왔으므로 그를 行中執事로 정했던 것이다.’¹⁴¹⁾라고 하여 그의 권한 하

139) 趙職, 《海槎日記》, 갑신년(1763), 6월 15일.

140) 조엄, 《해사일기》, 갑신년 4월 7일

에 차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훈도는 여러 나졸과 하부 원역을 거느리는 임무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관의 반열에 머물렀으므로, 사행 후 국가에서는 급창과 함께 료를 더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도훈도는 삼사에게 각각 1인씩 소속되어 총 3인을 차정하였다. 이들은 당시 원역 중 균율을 맡아 다스렸던 듯 하다. 조엄의 《해사일기》 중 ‘원역에게 曉諭한 글’ 부분에서, ‘군졸에게 죄가 있으면 牌頭 및 도훈도를 다스리고,’라고 나오는 것이 그러하다. 군졸들은 대부분 旗手·槍手 등을 일컫는 말인 듯 하다.

도훈도도 경상도 감영에서 많이 차출하여, 대부분 좌수영·동래·대구 등 경상도 출신자들이 많았다.

(라) 使令

사령은 병조 소속 京衙前의 하나로 羅將·所由·鳴導 등으로 불리었다. 이들은 주로 義禁府·刑曹·司憲府·司諫院·徒尉都摠府·典獄署·平市署 등 중앙의 司正·형사업무를 맡은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다. 한편, 사령은 外衙前으로서 각 급의 鎭에 배속되기도 하였는데 그 임무는 경아전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당시 사행에 참여하였던 사령들은 대부분 鎭에 배속되었던 외아전이었던 것 같다. 모든 사행에서의 출신지를 알 수는 없지만 1607년 사행과 1763년 사행 때의 사령 출신지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41) 조엄, 《해사일기》,

〈표 22〉 使令의 출신지

출신지 사행 시기	慶 州	永 川	南 海	延 日	淸 州	興 海	安 東	左 水 營	右 兵 營	左 兵 營	威 安	梁 山	長 鬣	淸 河	盈 德	熊 川	昆 陽	鎭 海	迎 日	釜 山	참고
1607년	1	3	1	1	1	1															경심, 《해사록》
1763년						1	1	1	2	2	1	1	1	1	1	1	1	1	1	2	남옥, 《일관기》
계	1	3	1	1	1	2	1	1	2	2	1	1	1	1	1	1	1	1	1	2	26

모두 수도에서 근무하던 경아전이 아니라, 각지의 진이 있던 곳에서 차출하여 온 것을 보면 외아전임이 틀림없다. 이들은 사행에서 격군이나 사공 등 하부 수군직의 원역들이 죄를 지어 문초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으며, 관소에서도 출입을 통제하는 일 등을 했다. 군행렬에서도 줄이 흐트러지면 안되었으므로 그런 통제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마) 鼓吹樂手

鼓吹樂手라 함은, 軍中에서 취악기와 타악기를 다루던 군사를 말하는데, 행렬의 앞에 서는 吹鼓手와 뒤에서는 細樂手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취타와 세악을 겸한 대규모의 군악을 대취타라 하는데, 어가행렬이나 현관의 행렬이 있을 때 대취타를 취주하였다. 어전의 兼內吹를 비롯하여 서울의 5영문과 지방의 감영, 병영, 수영 등에 있었으며 각 고을에는 소취타가 있었다.

사행에서는 당시 국서를 가지고 倭京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었으므로 이에 악수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 때 이들은 모두 지방의 감영, 병영, 수영 등에 소속되어 있던 고취악수였던 듯 하다. 《증정교린지》를 통해 보이는 고취악수들을 나열해 보면, 吹手 18명, 馬上鼓手 6명, 銅鼓手 6명, 大鼓手 3명, 三穴銃手 3명, 細樂手 3명, 錚手 3명이 있었다.

우선 악기들의 용도부터 살펴보면, 마상고는 鞞 혹은 騎上鼓라고도 했는데, 군대가 행진할 때 말 위에서 치는 북이다. 동고는 쟁과리를 말하며, 大鼓는 큰 북을 말한다. 삼혈종은 號砲라고도 했는데, 총구가 세 개 달린 종으로 신호를 할 때 쏜다. 쟁은 징을 말하는데, 《세종실록》에는 ‘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銅으로써 이를 만들며 몸체는 둥근데, 혹은 크기도 하고 혹은 작기도 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취수들이 부는 취악기는 喇叭·角·螺·號笛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악수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장구, 북, 피리, 강강이 등이었다.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악수들은 대부분 행렬의 앞 뒤에서 군중의 위엄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

《경국대전》에는 취수의 시취에 대한 설명 중 취라치(吹螺赤)와 태평소(太平簫)에 대한 설명이 있다. 취라치는 각 또는 나를 부는 군사를 일컫는데, 軍中에서 가장 앞선다는 이유로 세종대에는 甲士의 예로써 기·보사(騎步射)를 시험하여 시취토록 한 일도 있다.¹⁴²⁾ 세종 대의 취라치는 6품 거관(去官)하였으나, 성종 2년(1471)에 종5품으로 거관하게 되었고, 거관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 허락되었다.¹⁴³⁾ 태평소를 부는 군사 역시 취라치와 함께 6품 거관하다가 성종 2년, 종5품으로 거관케 되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취라치의 예에 따르도록 되었다.

당시 고취악수의 인원과 명칭·출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남옥의 《日觀記》 뿐이다. 이에 의거해서 그 명칭과 출신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3〉 鼓吹樂手の 출신지

출신지	左	固	右	晉	東	統	安	玉	昆	加	羅	左	蔚	唐	天	南	長	巨	泗	慶	金	昌	河	鎮	長	계
	水	城	兵	州	萊	營	骨	浦	陽	德	州	兵	山	浦	城	村	木	濟	川	州	海	原	東	海	鬢	

142) 《世宗實錄》 권64, 16년 4월 임자.

143) 《成宗實錄》 권10, 2년 6월 정미.

고취악수	營	營	浦	營	浦	浦																					
號箏手 ¹⁴⁴⁾	1	1									1	1								4							
喇叭手 ¹⁴⁵⁾	1	1					2						1	1						6							
唃囉手 ¹⁴⁶⁾			1	1										1	1					4							
鼓手					1	1				2									1	1	6						
鐸手						1					1		1								3						
點子手 ¹⁴⁷⁾			1				1	1			2										1 6						
銅鼓手								1				1									1 3						
太平手	2																				2						
螺角手 ¹⁴⁸⁾		1								1											2						
계	4	1	2	2	1	1	1	1	1	1	2	1	2	1	2	1	2	1	2	1	1	1	1	1	1	2	36

이들의 출신지로 보건데, 모두 경상도 전라도 등의 수군들로, 지방적 색채가 확연히 드러난다. 비록 사료가 부족하여 1763년 사행 하나 밖에는 알 수 없지만, 지방의 감영 중에서도 경상도와 통제영으로 그 출신지도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발지와 의 거리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차정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節鉞奉持·旗牌官

- 144) 號箏手와 같은 말. 호적은 발방(發放)을 맡았다. 관기(官旗)를 모으고 발방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 145) 나팔은 대열의 배치를 맡는다. 혼자서 부는 것은 호령을 맡는 것이고, 길게 내는 소리는 병졸을 집합시키는 것이며, 북을 두드리면서 부는 것은 대오를 벌려 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오를 배열한 뒤에 또 긴 소리로 부는 것은 일렬로 배열하라는 것이고, 긴 소리로 불며 기를 돌리는 것은 몸을 돌리라는 것이며, 밤에 북을 치며 긴 소리로 부는 것은 경점(更點)을 정하는 것이다.
- 146) 바라는 곧 螺인데 소리는 大角과 같다. 처음 세 번 소리를 내어 불면 곧 몸을 일으켜야 하며, 두 번째 불면 기구를 가지고 말에 올라야 하며, 한 번 불면 두목이 몸을 일으켜야 한다. 태조가 행군할 때에 늘 바라를 붙여서 신호를 하였으므로 세종 이후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 147) 점자란 '田'자 모양의 정간(井間)이 있고 자루가 달린 틀에 소탁(小鐸) 4개를 단 악기로서 쉼타(吹打)에 썼다.
- 148) 大角 은 은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이를 만들어 붉은 칠을 하거나 혹은 검은 칠을 했다. 中角은 제도가 대각과 같으나 각이 조금 작는데 황동과 도금으로써 이를 만들고, 혹은 쇠뿔을 사용하여 나무로써 자루를 만들고 붉은 칠을 하였다.

사신들의 행렬에서 고취악수와 함께 빠지지 않는 군사 중 하나는 기패관들일 것이다. 군중에서 여러 것들을 상징하는 깃발들을 들고 행렬을 장식했던 기패관들, 그와 함께 국왕이 특수 임무를 주면서 내린 절월을 받 들고 가는 이들 모두 군중 대오와 관계있는 직책을 가진 이들이었다. 절월봉지인 4명 이외에 기패관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형명수·독수가 각 2명, 월도수 4명, 순시기수·영기수·청도기수·삼지창수·장창수가 각 6명 이었다.

〈표 24〉 절월·기패관의 출신지

	左水營	河東	蔚山	南海	熊川	昌原	豆毛浦	晉州	助羅浦	興陽	安骨浦	永川	晉州	金海	慶州	統營	天城鎮	釜山	唐浦	咸平	巨濟	多大浦	寧海	西生浦	계
節手	1											1													2
鉞手		1											1												2
纛手			1											1											2
形名手				1											1										2
清道手					1											2									3
令旗手				1		1											2					1	1		6
巡視手				1			2											1					1	1	6
三枝手	1			1			1	1													1				5
月刀手						1			1	1															3
長鎗手						1			1		1			2				1							6
大旗手																			1	1					2
계	1	1	1	4	1	3	3	1	2	1	1	1	1	1	3	2	2	1	1	1	2	1	2	1	38

위의 표에서처럼 절월·기패관도 앞서 설명한 원역들과 마찬가지로 경상도·전라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별로 구분해 봐도 전라도보다는 경상도인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수들의 인원수를 보면 청도기수가 3인, 삼지창수가 1인 모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수들 중 일부는 격군과 겸직했으므로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사) 沙工·格軍

사행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 원역은 격군이였다. 이들은 우선 배의 노를 젓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육로에서는 기를 드는 기수가 되기도 하였다. 사공도 격군과 함께 노를 젓는 일을 하였는데, 직업적으로 격군보다 기술이 뛰어난 자들 중심이었던 듯하다. 격군은 그 수가 많았지만 감원을 할 때는 제일 순위로 감원대상이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다른 하위직과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란 이전에 격군은 諸浦의 船軍 이외 諸嶺의 船上에 익숙한 사람을 간택하여 率行하게 하였다.¹⁴⁹⁾ 임란 이후 격군의 차출에 관해서는 1607년 사행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사료가 있다.

“「타고 갈 선박·격군(格軍)·집물(什物)·행량(行糧) 등과 대동하고 갈 하인 등은 경상 감사와 통제사에게 명하여 경인년의 예에 의하여 미리 정제토록 할 것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뢴다.」고 하였는데 「윤허한다.」는 전교를 받았다. 그러니 계사(啓辭)의 내용대로 살펴 시행하되, 관문 내의 선척은 통제영에 분정하고 격군·집물·행량과 대동할 인원은 감영(監營)에 분정(分定)하니 급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¹⁵⁰⁾

즉, 사행에서 격군의 인원은 감영에 분정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선박은 통제영에서 만들었는데, 이 중 격군 등 대동할 인원은 감영에 분정하였다. 그러나 감사는 격군을 감영에다 분정함은 옳지 못하다고 하여 본도의 연해 각 고을과 전라 좌·우도의 연해에 있는 각 고을에 차출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유인 즉, 선척의 좌우에 노를 각각 9짝씩 배열해야

149) 《成宗實錄》 권100, 10년 1월 정축.

150) 《宣祖實錄》 권205, 39년 11월 정축.

하는데, 노 하나마다 격군 3명씩을 정급한다면 1척의 배에 병졸이 54명이
고, 4척의 배¹⁵¹⁾에 총당될 격군의 수가 거의 2백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
들을 다 기한 내에 변통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다른 지역에 분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격군 중 40명은 호남의 좌우 수영에 분정하였고,
본도에서는 각 고을에 분정할 필요 없이 各浦의 士兵 가운데 노를 잘 짓
는 자들을 뽑아 보내게 되었다.¹⁵²⁾

격군 및 사공의 노 짓는 기술은 차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渡海
譯官의 절목에 의하면¹⁵³⁾, ‘遠涉重冥 專在沙格’라고 하여, 멀고 어두운 바
다를 건널 때 오로지 사공과 격군에 달렸다고 하고 있다. 또, 만약 바다를
건너는데 익숙하지 못한 자는 가려내어 빼어 버리고, 각별히 선출하도록
하여 그 능력을 중시하면서 엄중하게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회답사행 이었던 1617년 사행에서는 격군으로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일본에 포로로 갓었던 사람은 충원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나온
다.¹⁵⁴⁾ 이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일본인들과 거래를 하고, 바다를 건
넌 뒤에는 많은 館舍를 거치면서 비밀리에 출입하여 누설해서는 안 될 말
을 누설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이후 차출 과정에
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표 25〉 格軍의 출신지

	정사기선	정사복선	부사기선	부사복선	종사관기선	종사관복선	계
統營	4	2		1	1		8
昆陽	3						3
固城	3	1					4
興陽	1						1

151) 1607년 회답검쇄환사행에서는 4척의 배가 운행하였다.

152) 《宣祖實錄》 권205, 39년 11월 정축.

153) 《日本所在韓國古文書》-탈초본, 국사편찬위원회, 2002

154) 《國譯備邊司謄錄》光海君 9년(1617) 4월 11일.

加徳	3						3
玉浦	2						2
珍島	1						1
熊川	1						1
齊浦	4						4
東萊	2						2
安骨浦	1	1					2
[蜿]梁	1	1					2
扶安	1						1
寶城	1						1
羅州	2						2
機長	1			1			2
京	1 ¹⁵⁵⁾	1	1 ¹⁵⁶⁾		2	1	6
晉州		1					1
[漆]原		2					2
[龜]山		1					1
[龜]山鎮		1					1
蜿梁鎮		1	1				2
加背梁浦		1					1
助羅浦		1					1
助羅		1					1
新門浦		1	1				2
平山浦		1					1
平山		1					1
釜山		1		2	2	7	12
包伊浦		1				1	2
靈光		1					1
臨陂		1					1
樂安		1					1
安東		1					1
晴川浦			1				1
赤梁浦			4				4
栗浦			2				2
古阜			1				1
智世浦			4				4
三千浦			2		1		3
務安			2				2
金海			3				3
草梁			1	1			2
多大浦			1			1	2
沃溝			1				1
左水管				4			4
開雲浦				3			3

包甲浦				1			1
豆毛浦				1			1
西平浦				1			1
清河				2			2
蔚山				2		1	3
靈德				4		1	5
迎日				1		1	2
天城鎮					1		1
巨濟					2		2
泗川					1		1
鎮海					1		1
威平					1		1
長興					1	1	2
[脉]助項浦					4		4
康津					2		2
永登浦					3		3
舊口非浦					1		1
加背梁浦					1		1
興德					1		1
靈岩					2		2
茂長					1		1
西生浦						3	3
慶州						3	3
興海						1	1
계	32	24	25	24	28	21	154

위의 표는 1763년 사행록 중 남옥의 《일관기》에 나와 있는 격군의 출신지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행록은 격군의 인원수만을 기록했으며, 격군의 성명과 출신지를 다 기록한 것은 《일관기》가 유일하다고 하겠다.

표에서 제시된 격군의 인원수는 154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에 비하면 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기수 등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155) 李守義의 奴.

156) 趙昌旭, 남도에서 복선장이 죽자 임시장이 됨.

4. 使行 中 差定

使行 員役은 사행 전에 미리 정하여 사행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행 중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正使나 三使의 권한으로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원역을 다시 차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행 중의 차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행을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軍官과 譯官을 先來로 차정하여 狀啓와 함께 미리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임자가 사행 도중 변을 당하거나 죽거나 하여 새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차정하는 것이다.

사신은 사행 중의 중요한 보고 사항 등을 날짜별로 장계로 작성하여 역관과 군관을 먼저 조선으로 돌려 보냈다. 먼저 보낸 군관과 역관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先來軍官·先來譯官’이라 불리었다. 이들의 차정은 三使가 의논하여 正使가 임명했으며, 장계는 三使가 의논하여 작성하였다.¹⁵⁷⁾

〈표 26〉 통신사행 先來軍官 및 譯官

시기	인용	선래군관	선래역관	차정일·지역	기타
1607	경섭, 《해사록》	상사군관 呂卿軸, 경포수 金碩連		윤 6월 17일(무인), 赤間關	회환장계
1617	오윤겸, 《동사상일록》	李眞卿, 申景祺	소통사 1명	江口	선래장계
1617	이경직, 《부상록》	李眞卿, 申景祺		정사년 9월 15일(정미)	선래장계
1624	강홍중,	강덕취,	張善敏	을축년 1월	사자관

157) 申維翰, 《海遊錄》, 1719년 12월 24일 임술.

	《동사록》	상사군관 李安農		21일(경오), 大坂	李誠國이 작성, 삼사가 봉함.
1636	임광, 《병자일본일기》	朴弘疇, 尹愛信, 韓相國		정축년 2월 16일(병술), 對馬島	선래장계
1643	미상, 《계미동사일기》	鄭傳賢, 尹龍祥	金時聖	10월 2일(임술), 對馬島	선래장계
1655	남옹익, 《부상록》	韓相, 朴之壩	洪如雨	병신년 1월 14일(계사), 對馬島	선래장계
1682	홍우재, 《동사록》, 김지남, 《동사일록》	정사군관 李萬相, 부사군관 尹就五	상판사 安愼徽	임술년 10월 18일, 對馬島	선래장계
1711	임수간, 《동사일기》	李詒, 鄭讚述	玄德潤	임진년 2월 13일	선래장계
1719	신유한, 《해유록》	崔必藩, 韓世元	韓重億	기해년 12월 24일(임술), 對馬島	선래장계
1748	조명채, 《봉사일본시 문견록》	李柏齡, 李逸濟	상판사 李昌基	무진년 7월 18일(경자), 對馬島	선래장계
1763	조엄, 《해상일기》	李海文, 柳鎮恒	차상통사 , 崔壽仁	갑신년 4월 28일(기유), 大坂	선래장계
1811	유상필, 《동사록》	李中和, 鄭營將, 卜文圭		신미년 6월 24일 對馬島	선래장계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매 회마다 선래군관 2인, 선래역관 1인이 파견

되었다. 장계는 삼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했는데, 1624년 사행 때에는 사자관이 작성하기도 했다. 선래원역을 차정한 지역도 1·2차 사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對馬島나 大坂이다.

군관들을 대부분 정사나 부사에 소속된 군관을 1인씩 차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계 전달시 삼사신과 친분이 있는 자여야 사행에서의 일들을 삼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811년 사행에서는 선래역관의 명단이 보이지 않는데, 대마도까지만 사신행차가 이뤄졌으므로 역관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덜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신 군관이 1인 더 늘어 총 3인이 파견되었다.

선래군관이나 선래 역관 외에 차정되는 이들은 대부분 원래 선임자가 많이 다치거나 죽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들이었다. 그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복선장 유진원(兪進源)이 지난번 대포에 있을 때에 선상에서 떨어져서 내상이 매우 중하므로 계속해서 약물로 치료하여 그 동안 조금 나아갔는데, 마침내 더치어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¹⁵⁸⁾ 동래 장교 변탁(卞琢)은 곧 내가 동래부사로 있을 때에 신임하던 자인데, 사람됨이 자못 영리하였다. 이번 걸음에 격군이란 이름으로 데리고 왔더니, 부사가 복선장의 대임이 없음을 걱정하므로, 탁(琢)을 대임으로 삼았다.¹⁵⁹⁾

(나) 괴한이 도훈도 최천종을 살해하였다.¹⁶⁰⁾ 도훈도가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향서기(鄕書記) 김광호(金光虎)를 승급 차출하였다. 또 통인(通引) 박태범(朴泰範)은 내가 동래부사를 할 적에 부리던 사환으로 극히 영리하고 문장에도 능하므로, 비록 이역(吏役)에 종사할망정 상투를 내려서 데리고 왔던 것인데, 이제 다시 상투를 올려서 광호의

158) 趙曦, 《海槎日記》, 계미년(1763) 10월 30일 계속.

159) 趙曦, 《海槎日記》, 계미년(1763) 11월 1일 갑인.

160) 趙曦, 《海槎日記》, 갑신년(1764) 4월 7일 무자.

자리를 대신케 하였다.¹⁶¹⁾

(가)는 1763년 사행 때 부복선장이 중상을 입었다가 죽음에 이르러 그 자리를 비우게 되자 대임을 차정한 내용이다. 본 내용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사행록 속의 '삼사일행록'에 보면, 부복선장 유진원의 자리는 당시 기선장이었던 金潤河로 바꾸고, 다시 기선장의 자리는 당시 격군으로 사행에 참가했던 동래 장교 변탁이 맡게 된다. (나)는 당시 도훈도이던 최천종이 일본인에게 살해당하자, 그 빈자리를 향서기인 김광호로 하고, 김광호의 자리는 동래의 소동인 박태범으로 정하여 차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박태범의 상투를 내려서 데리고 왔다는 말은, 그를 '소동'이란 명칭으로 데리고 왔음을 의미한다. 통신사행은 바다를 건너 이역으로 가는 일이어서 불의의 사고나 변수가 많았으므로, 사행 중의 변경을 당해 꼭 필요한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에는 三使가 의논하여 正使가 대임을 차정했다.

사행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들로 인해, 격군으로 따라가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각자의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았다. 아마도 이런 사고들로 인해 대임의 자리가 필요하면 다시 차임할 필요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기도 하다. 이들의 명칭은 하관인 격군이었으나 실제 그들의 신분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1763년 사행에서 정사였던 조엄의 사행록을 보면, '500명 종인을 비록 아부는 실행이 있고 아부는 기개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강 논해 보건대, 문사에 능한 자도 있고, 무예에 능한 자도 있고, 의약에 능한 자도 있고, 역학에 능한 자도 있고, 서화에 능한 자도 있으며, 말풀이에 능하고 배부리는데 능한 자, 병서를 외고 병례를 익힌 자가 다 왔고,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장기두는 자, 바둑두는 자, 쌍륙(雙六)하는 자, 뱃사공(梢手)·악공·점장이·상장이·잠

161) 趙巖, 《海槎日記》, 갑신년(1764) 4월 9일 경인.

수자·배우·針線者·조각자·結總者·목수·야장·포수·무당 등 모두가 있으니, 또한 사람은 나 한가지 능함이 있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여 당시 사행에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여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중요한 직책을 대임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포함하여 사행에 임했음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행에서의 대임을 차정하는 것은 대부분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간 경우가 많았지만, 항상 등급을 올려주는 일만 있지는 않았다. 1655년 사행에서는 원역 등급이 강등된 자도 보인다. 즉, 사행에서 江戶까지 행렬을 따라가는 이들 외에 兵庫에 남아있던 이들은 일부 원역들이 통제하고 감시하여 삼사가 돌아오면 보고를 하였다. 1655년 사행에서도 중관에 있던 都愼德이 험잡한 일이 많았다는 보고를 들은 종사관은 도신덕을 하관으로 강등시킨 일례가 나온다.¹⁶²⁾ 즉, 사행 중에서도 원역의 활동이나 역할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構成의 變化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 파견에 대한 시기구분은 그 입장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원순·하우봉은 조선 후기의 통신사를 그 형태에 따라 구분¹⁶³⁾하고 있으나, 손승철은 교린체제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전반의 통신사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반면 일본 학자인 三宅英利는 일본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선 후기 통신사를 '국교재

162) 남용익, 《부상록》, 을미년 12월 10일.

163) '하우봉,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사절왕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1997' 에서 이원순과 같은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개기, 전기안정기, 변혁기, 후기안정기, 쇠퇴기'의 5시기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시기구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7 > 통신사 시기구분

파견연도	孫承喆	三宅英利	李元淳	河宇鳳	
1413	조선전기 (1392-1592) 中華的 交隣體制	우로마치막부에 파견된 통신사			
1429					
1439					
1443					
1460					
1479					
1590				도요토미정권에	
1596	임란직후 (1607-1635)	파견된 통신사			
1607	中華的 交隣體制的 復活	국교재개기	교린관계 회복	교린관계 회복	
1617			단계	교섭기	
1624			(1603-1635)	(1599-1635)	
1636					
1643	조선후기 (1636-1810) 脫中華의 交隣體制	국교안정 전기	통신使·問慰行 이원교류의 단계 (1636-1811)	교린체제의 확립 및 안정기 (1636-1811)	
1655					개변기
1682					
1711		국교안정 후기			
1719					
1748					
1763					
1811	交隣體制的 變質과 崩壞	쇠퇴기			
1812이후			問慰行 일원교류의 단계 (1812-1867)	쇠퇴기 (1812-1867)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교린이라는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하되 사행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결과 사행시기를 교린체제회복기(1607~1624년 사행)·교린체제정비(1636~1655년 사행)·교린체제안정기(1682~1763년 사행)·교린체제쇠퇴기(1811년 사행)의 네 시기로 크게 구분하여 구성의 변화과정을 살

펴보기로 한다.

1. 交隣體制 回復期(1607~1624년 사행)

1607년 ‘회답검쇄환사’라는 명목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通信’을 한다는 의미보다 임란 이후 피로인 쇠환이라는 의미가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 파견된 사신이였다. 동시에 일본과 다시 국교를 회복하려는 시도도 작용했다. 결과 정식으로 통신사란 명칭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구성원의 명칭이나 인원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회답검쇄환사’라는 명칭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1607·1617·1624년으로 총 3차례이다. 이 시기의 사행들은 병자호란(1636)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료가 소실됨으로써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다. 《증정교린지》에서도 ‘이 시기의 신행절목 등의 일은 文籍(통신사등록)이 없어 고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행의 성격도 ‘通信’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 사행들을 ‘통신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신사’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도, 임란 이후 신의 회복을 위해 대표격인 삼사신의 인술 아래 국왕의 서계를 들고 倭京까지 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사행의 구성원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사행록¹⁶⁴⁾에 나와 있는 원역좌목들 뿐이다.¹⁶⁵⁾ 하지만 원역좌목도 인원수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세세한 부분을 다 알기는 힘들다. 사행록을 중심으로 보면,

164) 경섭의 《해사록》(1607), 이경직의 《부상록》(1617), 강홍중의 《동사록》(1624).

165) 해사에서 차정한 일부 원역들은 《통신사등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인원수가 1607년에는 467명¹⁶⁶⁾, 1617년에는 428명이었으며, 1624년의 사행록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에 460명이라 되어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정사·부사·종사관과 역관들, 그리고 군관·의원·화원·격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인원수가 정립되지 못했다. 그리고 원역 명칭 또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624년 사행에서는 격군·사공 등 각 감영에서 차정한 이들의 명칭 및 인원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사에서 차정한 이들을 중심으로 그 구성 및 인원수를 살펴보겠다.

우선 삼사신 외에 역관의 인원수가 1607년 사행 때에는 6명이었는데, 이후 두 차례에서는 7명, 9명으로 인원수가 증가하였다. 삼사의 자체군관 및 군관들은 1607년에 8·8·3(정사·부사·종사관)명, 1617년에는 8·8·1명, 1624년에는 7·7·3명으로 《증정교린지》나 《통문관지》에 규정된 인원수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세 외교 저서에는 小通事를 제외한 역관이 10~12명, 군관이 10·10·7명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물론 정식 통신사 파견 이후 언어 소통에서 중요했던 역관과 기예를 보여주는 군관의 수를 늘리게 되면서 생겨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의원·화원·사자관은 각각 2명·1명·1명으로 동일하나 처음 파견된 사자관은 명칭이 書寫員이라 되어 있다. 1607년 서사원은 변철수인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寫字官 변철수’라 하고 있으므로, 사자관과 같은 직명으로 파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1607년 사행에서는 ‘學官’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이것은 앞서 밝힌 바 있는 제술관의 호시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1607년 사행에서는 배가 4척만 파견되었는데, 격군이 36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후 사행에서는 6척의 배에 280여 명의 격

166)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에는 467명이라 되어 있고, 사행록에는 총계가 504명이라 되어 있으며, 원역좌목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483명이다.

군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많은 인원수이다. 결과 다른 원역들의 인원수는 조금씩 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답검쇄환사'는 그 주된 목적이 피로인쇄환에 있었기 때문에 해사에서 차정한 원역들의 수도 이후의 사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행원 구성은 임란 이전과 더 가까워 임란 이후의 통신사와는 과도기적인 사절 구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결과 구성 인원이 일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607년 사행에서는 4척의 배로 운행하던 것이 이후에는 6척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원역과 인원수의 변화도 있었다. 전란 후에는 사절의 구성이나 성격이 전쟁의 여파로 경직되어 있었고, 그들의 임무가 겉으로는 피로인쇄환이라고 하나, 내적으로는 일본 국정을 탐색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구성원이 파견되었던 것 같다.

2. 交隣體制 整備期(1636~1655년 사행)

정식 통신사 명칭이 사용된 것은 1636년 사행 때였지만 그 때 사행 구성원도 모두 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1636년 사행 때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해 많은 사료들이 소실되어 이후 사행에서는 전례를 상고할만한 규정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후 사행부터는 일광산치제라는 문제로 인해 구성인원에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정식 통신사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구성원역이 구체화되어 예가 되는 것은 1682년 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636년 이후 3차례의 사행은 정식 통신사로 파견된 사절인 동시에 회답검쇄환사 파견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를 정비시켜간 사절이라 할 수 있다.

1636년 사행부터는 신행절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 이후 사행에 구성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636년 사행 원역들은 이후와 인원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흡사하다. 삼사와 역관, 사자관, 이문학관, 의원, 화원, 군관, 서기, 전악, 마상재 등이 해사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마상재와 서기가 추가되었으며, 이문학관도 1607년 사행 때 학관이 파견된 이후 같은 성격으로 파견된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사행절목을 보면, ‘男樂, 養馬人, 雜藝技能, 그림을 잘 그리는 자, 글씨를 잘 쓰는 자, 명의, 승마기술에 능한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요청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효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관의 수도 자체군관을 포함하여 7-7-3명으로 정립된다.

하지만 1636년 정식통신사를 시작으로 하면서도 다음 사행인 1643년과 1655년에는 일광산치제라는 명목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생긴다. 일광산은 일본에서 옛날부터 신앙의 영지로 숭상되어 왔던 지역이다. 奈良時代 勝道上人에 의해 그 산에는 신이 모셔지게 되었고 사찰이 세워졌으며, 鎌倉時代에는 源氏의 장군인 源賴朝와 源實朝가 귀의한 곳으로 선승들의 수련장이었으며, 室町時代에는 實町幕府의 요청으로 고려에서 기증하였던 대장경을 보관한 곳으로 유명하다. 江戸時代에는 德川家康을 봉안한 大權現宮이 창건되어 德川幕府의 정신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한 곳이기도 하다. 후에 이 일광산에는 덕천막부의 3대 장군인 家光의 묘당인 大猷院과 4대 장군 家綱의 원당인 儼有院이 창건되었는데, 통신사 일행이 사행 중 실시하였던 일광산치제라고 하는 것은 위 세 곳에서祭를 행한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일광산치제를 요구한 이유는 “德川家康이 조선을 위해 수길을

섬멸한 분이니, 마땅히 祭奠을 드려야 할 것이오.”라는 평의성의 말 때문이었다. 이를 시초로 사행 중에 일광산치제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역 중에 제례에 관련된 원역들이 참가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축관과 숙수이다. 독축관은 대마도 왜인이 “목소리가 청아하여 잘 읽을 사람을 데리고 와 달라.”는 뜻으로 먼저 간청하면 정해 놓은 독축관을 데리고 갔다.¹⁶⁷⁾ 또 1643년 강절절목에는 ‘삼사가 일광산에 나아갔을 때 勅筆, 종, 향로, 축대, 화병 등의 물품을 마땅히 준비하여 지급하고 祭文은 삼사가 가지고 가고 香奠¹⁶⁸⁾은 귀국의 예법에 의하여 행한다.’고 하여 제례에 쓰일 제물을 직접 준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궁중에서 음식을 만들던 남자 요리사인 숙수도 파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독축관이란 명칭으로 파견되지는 않았다. 《통신사등록》을 중심으로 1643년 사행원역을 살펴보면, 독축관이 아닌 이문학관이란 명칭으로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43년에는 이문학관이 2명 파견되었다. 아마도 찬·알자의 역할을 하는 원역을 더하여 2명이 된 것 같다. 또한 이 시기에 숙수도 2명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1655년 사행 때에는 모두 1인씩으로 줄어든다. 독축관은 1655년 《통신사등록》에 의하면, ‘독축관은 단지 독축이 아니더라도 江戸를 왕환할 때, 일본 문사들과 창화할 때에 망발을 하거나 또한 숨겨야 할 일을 돌연 발설하면 그것 또한 가히 염려되므로 충분히 가려서 데리고 올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독축이라는 점보다 시문에 능하거나 말을 잘 하는 자를 요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글이나 말에 능한 자를 데리고 갔던 것 같다. 숙수도 강절절목에는 ‘숙수 1명을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으며, 《통신사등록》에서도 ‘.....만약 익혀서 진설해야 할 것이 있으면 숙수가 있어야 하므로 숙수 1명을 데리고 와도 무방하다.’고

167) 《통문관지》 교린 하, 일광산에 치제하는 의식

168) 죽은 사람의 영전에 올리는 제물

하여 그 인원수를 1인으로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636년까지 사자관은 1원이었으나, 1643년 사행에서 사자관 인원수를 1원 더한 이후 2원으로 정착되었다.

독축관이나 속수 등의 원역은 그 역할이 일광산치제라는 제례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치제기간동안 파견되었으며, 결과 원역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대마도의 일본인이 ‘관백이 아직도 省謁하지 않았으니, 다른 나라의 사신이 먼저 致奠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그 집정의 글을 가지고 와서 고하면서 치제는 정지되었고, 이후로는 폐지되었다. 그와 함께 1682년 사행 이후로는 독축관은 제술관으로 명칭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속수도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

3. 交隣體制 安定期(1682~1763년 사행)

1636년 정식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인원 구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636년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통신사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나, 잇따라 발생한 호란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 《통신사등록》 속의 내용도 1636년 사행의 내용은 아주 소략하게 되어 있을 뿐이고, 1643년 사행 이후부터 자세한 절목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1643년과 1655년 사행에서는 일광산 치제로 인해 구성원의 변화가 있음을 앞에서도 언급했다. 그래서 정식 통신사라 해도 1682년 이후의 사행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당상역관과 압물통사가 1인 증가, 독축관이 제술관이라는 명칭 사용, 양의가 1인 추가, 사자관이 2원으로 정착된 것이다.

당상역관과 압물통사는 1682년 사행에 일본인들이 1인씩 더 두기를 요청하여 이후로 관례로 삼았다.¹⁶⁹⁾ 제술관이라는 명칭은 1682년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1636년에는 이문학관으로, 일광산치제기에는 독축관이던 것이 그 명칭이 변경되어 정립된 것이다. 또한 서기 3명이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643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대마도에서 일본국왕서계를 위조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삼사에게 1인씩 서기가 배정되어 기록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의’가 추가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춘관지》에서는 ‘임술년(1682)에 왜인의 요청으로 의술업에 정통한 자를 골라서 보냈다.’고 하여, 양의의 증원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런 변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화교류의 성격을 가진 원역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1636년과 1682년 이후의 시기를 통틀어 보더라도 마상재인이라는 기술을 가진 원역이 늘어난 것, 일본인의 요청에 의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늘어나 사자관이 2원으로 정착된 점, 앞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풍악수가 늘어난 점 모두 그런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군관들도 기예가 뛰어난 이들을 선발하여 도주나 관백 앞에서 그 재주를 뽐냈고, 화원·의원·제술관·사자관 등도 그 재능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로 선발하여 일본인과의 필담이나 그림 등의 요구에 응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交隣體制 衰退期(1811년 사행)

1763년 사신 파견 이후 1786년에 관백 家治가 죽고 그 아들 家齊가 그

169) 《통문관지》, 《춘관지》, 《증정교린지》에 동일하게 적혀 있다.

자리에 올랐으나 통신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1788년 차왜가 와서 延聘¹⁷⁰⁾이라 칭하고 관백의 뜻을 전하기를, ‘서경(西京:京都)에 불어나서 재력이 다 없어졌고 동무(東武:江戶)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통신사를 접대할 가망이 거의 없으므로 잠시 시기를 물리기를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규정 이외의 일이라 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차왜가 돌아가지 않자 논의 끝에 통신사 파견을 늦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791년에 차왜가 또 와서 관백의 명을 전하기를, 통신사 일행이 江戶까지 갈 것이 아니라, 대마도까지만 오도록 함으로써 피차간의 폐단을 덜자고 하였다. 이 또한 규정 밖의 일이어서 접대하지 않았는데, 차왜가 4년동안 버티다가 1794년에 비로소 다만 서계만 바치고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허락하였다. 이후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장소 이전을 하다가 1811년 사행에서는 비로소 易地通信을 허락하게 되었다.¹⁷¹⁾

마지막 통신사행이 되어버린 1811년 사행에서는 지역만 바뀐 게 아니라 구성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삼사신 중 종사관이 빠진 정사·부사만 파견되었다. 그에 따라 기선 2척·복선 2척만 渡海하였다. 둘째, 마상재가 제감되었다. 셋째, 총인원이 35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줄었다. 결과 당시에는 총 336명의 인원이 파견되었다. 즉, 앞의 대체적인 변화만 보더라도 인원수의 감소를 눈에 띄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종사관이 빠지면서 그 선척도 줄어 격군과 사공이 격감되었고, 기선장 및 복선장과 기타 원역들의 감원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다.

역지통신 후 통신사의 요청이 있었으나 계속된 연기와 다시 江戶로 지역을 바꾸는 요청이 따르는 등 상황이 어긋나게 되면서 통신사는 파견되지 않았고, 1811년 사행이 마지막 통신사행이 되었다.

170) 통신사퇴정고지차왜(通信使退定告知差倭).

171) 《중정교린지》 제5권, 통신사행, 신행각년례.

V. 결론

앞서 12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던 조선 후기 통신사행에서의 원역 구성 및 차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종래의 연구가 통신사의 활동이나 인식을 살피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데 비해 본고에서는 원역 자체를 밝힘으로써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사료부족으로 세세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역은 앞으로의 계속된 연구로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본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역들은 일본인들의 접대를 기준으로 크게 상상관·상관·차관·중관·하관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상관은 당상역관을 일컫는 말인데, 사행에서의 우두머리 격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삼사신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중 삼사신은 사행에서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당상역관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상관은 군관과 잡예를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차관은 사신의 특수성에 맞춰 동원되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중관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군의 업무를 띤 원역들이며, 하관은 하위 수군직인 격군 및 풍악수로 구성되었다.

둘째, 통신사행 구성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차정되었는데, 삼사의 자벽에 의한 차정, 해사에 의한 차정과 지방의 감영에 의한 차정이다. 삼사신이 직접적으로 차정하는 이들은 자체군관·반당·노자 등이며, 해사에 의한 차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졌고, 해당원역 중 특별한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기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해당 감영별 차정은 해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공·선장·격군 같은 원역과 육로에서 행군에 필요한 기수·취고수 등의 원역을 중심으로 차정하였다. 특히 지방의

해당 감영은 경상도 감영과 통제영을 일컬으며, 여기에서 차정한 원역들은 지방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셋째, 사행 전에 해당 원역을 차정하는 것 외에 예외적으로 사행 도중에 대임자나 선래역관 및 군관을 차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임자는 대부분 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사행의 최고직인 정사가 선정하여 차정하였다. 원역 중 비슷한 직책의 대임 차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격군 속에 일부 관인이 포함되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사행 중 보고할 사항들은 장계를 작성하여 미리 조선으로 보내었는데, 그 전달자로 선래군관이나 선래역관이 차정되었다. 이들은 사행 중 특수직으로 차정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총 12회에 걸친 조선 후기 통신사 파견에서 전체 원역의 인원수 및 구성의 변화는 교린체제 회복기(1607-1624년 사행)·교린체제 정비기(1636-1655년 사행)·교린체제 안정기(1682-1763년 사행)·교린체제 쇠퇴기(1811년 사행)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린체제 회복기는 세 차례의 회담검쇄환사가 파견된 시기로, 사절의 파견이 안정되지 못했고, 사절의 목적도 피로 쇠퇴에 있었으므로 그 구성이 정식 통신사 파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교린체제 정비기는 1636년 정식 통신사 명칭을 사용했던 시기와 이후 2차례 있었던 일광산치제로 인해 원역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기를 말하는데, 이 때에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관계로 그에 필요한 특수직으로 독축관과 숙수가 파견되었다. 교린체제 안정기는 치제가 끝난 1682년 사행부터 易地交聘 전까지의 사행으로 문화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교린체제 쇠퇴기에는 사신 파견 지역의 변화와 함께 구성원의 대폭적인 축소가 이루어졌다. 종사관이 빠지면서 기선과 복선도 한 척씩 빠져 인원수가 35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줄게 되었다. 또한 마상재인도 除滅되어 이전에 일본에서 행해졌

던 활발한 문화교류의 장을 펼칠 수 없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상 통신사의 구성 및 변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남는다. 하나는, 원역 구성에 대한 기준점이다. 원역의 차정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나름대로 조선측에서의 기준점을 찾아서 차정절차나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원역 구성원의 명칭이나 직무에 따른 구분은 일본측의 접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선측의 사료에서도 그에 맞는 기준으로 구성원을 제시하기보다 일본측의 구분을 그대로 따라와서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하여 다음에 원역의 구성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다면 조선에 맞는 기준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당시 원역 차정에 있어 지역사적인 연구가 미비한 것을 들 수 있다. 1회 사행에서 400~500여 명이라는 인원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해사에서 차정하였지만, 대부분 특수 기예를 가진 이들로 전체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인원수는 백 여 명 남짓하였다. 이들은 중앙에서 시취를 거치거나 추천을 받는 등 일정한 형식을 취해서 차출하였으므로, 그 과정이 대체로 명확하다. 이들 외 나머지 300~400여 명의 원역들은 남부 지방의 감영에서 차정되었는데,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차출과정이나 차출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한 지역사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선래군관이나 선래역관의 차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삼사신 중 정사가 임명하였다고는 하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장계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활동들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문점을 남긴다.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은 기초 사료를 확보하여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參考文獻]

【史料】

- 《경국대전》
- 《고사촬요》
- 《국조문과방목》
- 《대마도종가문서목록》
- 《대전통편》
- 《대전회통》
- 《동래부접대등록》
- 《동문회고》
- 《만기요람》
- 《무과방목》
- 《변례집요》
- 《부상록》, 김흡
- 《비변사등록》
- 《악학궤범》
- 《역과방목》
- 《일관기》, 남옥
- 《잡과방목》
- 《조선왕조실록》
- 《조선통교대기》
- 《증보문헌비고》
- 《증정교린지》
- 《통문관지》
- 《통신사등록》
- 《통신사등록초》
- 《통항일람》
- 《해행총재》

【國內著書 및 翻譯書】

- 金泰俊 外編,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中村榮孝 외저·金龍善 역, 《朝鮮通信使;일본은 우리가 키웠다》, 東湖書館, 1982
李元植, 《朝鮮通信使》, 대우학술총서, 민음사, 1991
李慧淳, 《朝鮮通信使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1996
三宅英利 저·趙學允 역, 《近世日本과 朝鮮通信使》, 경인문화사, 1994
金義煥,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正音文化社, 1985
신성순·이근성, 《朝鮮通信使》, 중앙일보사, 1994
朴贊基, 《朝鮮通信使と日本近世文學》, 보고사, 2001
三宅英利(김세민 외 옮김),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1996
三宅英利(손승철 역), 《근세한일관계사연구》, 이론과 실천, 1991

【國內論文】

- 강신향, 〈韓日兩國 譯官에 대한 비교 연구〉, 《인문과학》 2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곽정숙,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가 본 京都의 服飾文化〉, 동서산업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강재연, 〈1764년도의 朝鮮通信使의 日本使行에 대하여〉, 《亞細亞文化研究》 4, 2000
김경숙, 〈18세기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문학세계;서얼의 신분과 문학관을 통해〉, 《濫知論叢》, 1995
김문식,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대일인식〉,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02
김문자, 〈島井宗室과 1590년 通信使 派遣問題에 대해서〉, 《詳明史學》 2, 1994
金瑞蘭, 〈조선후기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선화, 〈조선통신사의 회화교류〉, 《동북아문화연구》 1, 동북아시아문

- 화학회, 2001
- 김석희, 〈조선후기 통신사에 대하여〉, 《조선후기 한일관계학술회의강연회발표요지》, 한국사학회, 1991
- 김성진, 〈조선후기 통신사의 기행서문에 나타난 일본관연구〉, 《陶南學報》, 1996
- 김성진, 〈1711년 通信使와 조선의 對應〉, 《日語日文學研究》 40, 한국일어일문학회, 2000
- 김양수,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 진출〉, 《東方學志》 104, 1999.
- 김영규, 〈조선후기의 對日抗禮外交와 對馬東藩意識 通信使行錄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영숙, 〈조선시대 통신사 및 隨行員 服飾의 通時的 考察〉, 《문화재》 19, 1986
- 김윤향, 〈18세기 申維翰의 일본인식에 관한 고찰-통신사기록 ‘海遊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의환, 〈부산의 草梁倭館과 對日通信使外交〉 《한일문화교류사》, 민문고, 1991
- 김일환, 〈조선후기 역관의 여행과 체험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재근, 〈朝鮮後期通信使船:船型과 構造〉, 《學術院論文集》 33, 자연과학편, 1994
- 김정일, 〈조선후기대일교린정책연구-1936년 통신사와 조선의 대마도인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지영, 〈18세기 圖畫書 畫員의 활동과 畫員畵의 변화〉,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정준, 〈조선시대 도화서와 화원의 신분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창기, 〈조선시대 통신사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문학교류-1711년 사행시의 교류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7, 한국일본학회, 1991
- 망기철, 〈학봉 김성일의 일본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한국학논집》 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2
- 배수영, 〈趙巖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문, 1997
- 小林幸夫, 〈朝鮮通信使와 民衆〉, 《일본학연보》, 1991
- 蘇在英, 〈18세기의 일본체험 -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 《논문집》 18, 숭실대학교, 1988
- 소재영, 〈《海行摠載》의 檢討〉, 《韓日文化交通史》, 민문고, 1991
- 孫承喆,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
- 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개념의 재검토〉, 《朝鮮時代史學會》, 2003.
- 송 민, 〈朝鮮通信使의 日本語體驗〉, 《어문학논총》 6,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7
- 송 민, 〈朝鮮通信使의 일본어 접촉〉, 《어문학논총》 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6
- 宋芳松, 〈掌樂院 所屬 樂工·樂生의 奉足制度 ; 「樂掌曆錄」을 中心으로〉, 《韓國文化》 14, 1993
- 辛基秀, 〈통신使의 길에 비친 韓日交流〉,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 柳鐸一, 〈한국고서적 일본간행고:조선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6,7(한국문화학회), 1984
- 劉承源, 〈朝鮮初期의 雜織, 掌樂院의 雜織〉, 《震檀學報》 51, 1981
- 유휘상, 〈조선초기 승정원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경자·弓民峰, 〈조선통신사 服飾의 一研究〉, 《服飾》 제7호 83-102, 1983
- 이동숙, 〈조선시대 후기 도화서 화원 연구〉,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민호, 〈壬亂과 韓·日의 外交關係〉,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실, 1993
- 이민호, 〈조선후기의 통신사행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상규, 〈17-18세기 東萊府에 파견된 倭學譯官의 기능〉, 한국정신문화

- 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성후, 〈金仁謙의 歷史認識〉, 《한국학논총》, 향산변정환박사화갑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992
- 이성후, 〈조엄과 김인겸의 대일관 연구〉, 《금오공대 논문집》 7, 금오공
과대학, 1986
- 이원식, 〈純祖11년 辛未日本通信使差遣에 중심으로〉, 《史學研究》 23,
1973
- 이원식, 〈通信使行과 文化交流〉, 《韓·日關係 學術會議 발표요지》, 한
국사학회, 1991
- 이원식, 〈조선통신사의 遺墨-일본에 남아있는 書畵를 중심으로〉, 《여
행과 체험의 문학·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이원식, 〈朝鮮通信使의 訪日과 문화교류-使行錄과 〈필담창화집〉을 중
심으로〉, 《보삼학보》 2, 모산학술연구소, 1991
- 이원식, 〈통신사가 남긴 문화〉, 《한일교류사》, 민문고, 1991
- 이원식, 〈한일선린외교와 조선통신사〉, 《사학연구》 58·59합집(내운최
근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 한국사학회, 1999
- 이자연,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간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服
飾文化研究-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服飾》 52-4,
한국복식학회, 2002
- 이현중, 〈조선전기 對倭使節派遣의 種別과 意義〉, 《史學研究》 17, 한국
사학회, 1964
- 이혜순, 〈17세기 통신사행집단의 문학과 의식세계-남용익의 〈壯遊〉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7, 1994
- 이혜순,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논문집》 18, 숭실대, 1988
- 이혜순, 〈18세기 한일문사의 교류양상-己亥使行시 한일문사의 〈唱酬
集〉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2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
소, 1991
- 이혜순, 〈室鳩巢의 賦三韓事蹟詩 小考-18세기 문사의 한국사인식〉,
《冠嶽語文研究》 18, 1999
- 이 훈,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朝鮮後期 韓日關係史學術講演會 發表
要旨》, 한국사학회, 1991
- 이 훈,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의 史料적 특징〉, 《水邨朴永錫教授華甲

- 紀念韓國史學論叢》下, 1992
- 이 훈,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書契式的 定着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4, 하늬고문서학회, 1993
- 李喜桓, 〈朝鮮初期 雜織의 設定과 運用〉, 《群山大學논문집》19, 1992
- 임성철, 〈朝鮮通信使往還における日本側の接待問題〉, 《논문집》3, 부산외대, 1985
- 임성철, 〈朝鮮通信使派遣路交渉狀況의 展開〉, 《釜山外大文化研究》, 부산외국어대, 1985
- 임성철, 〈朝鮮通信使路程記研究〉, 《釜山外大論叢》5, 부산외국어대, 1987
-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1994년 가을호, 1994
- 장덕순, 〈日本紀行의 日東壯遊歌〉, 《현대문학》95, 1962
-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13, 1990
- 장용걸, 〈조선통신사의 의례성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9, 경남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1999
- 全允珠, 〈朝鮮後期 譯官의 身分과 그 役割〉,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진해중, 〈壬亂後의 對日關係〉,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 鄭 光, 〈司譯院 倭學 研究〉,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정성일, 〈對馬島易地聘禮에 참가한 通信使〉, 《호남문화연구》20, 1991
- 정성일, 〈易地聘禮 실시전후 對日貿易動向〉, 《經濟史學》15, 1991
- 정장식,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 정장식, 〈1655년 通信使行과 日本研究〉, 《日本學報》44, 한국일본학회, 2000
- 정장식,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韓日關係史研究》11, 한일관계사학회, 2001
- 정장식, 〈癸未(1643년) 通信使行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10,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 정장식, 〈임술사행과 조일관계〉, 《일본학보》47, 한국일본학회, 2001

- 정장식,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일어일문학연구》 40,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 정현재, 〈朝鮮初期의 敬差官에 대하여〉, 《경희사학》 6,7,8, 1980
- 진해옥, 〈조선통신사와 조일관계〉,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박광, 〈18世紀韓日間의 漢文學 交流-淸泉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 1,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73
- 최영희, 〈조선후기 通信使와 倭館의 역할〉, 《조선후기 한일관계학술회 의강연회발표요지》, 한국사학회, 1991
- 최종일, 〈朝鮮通信使의 日光山致祭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하우봉, 〈通信使臚錄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 하우봉,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 《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12, 1986
- 하우봉, 〈朝鮮初期對日本使臣의 日本認識〉, 《코리아나》 4-1, 1991
- 하우봉,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사절왕래를 중심으로〉, 《東洋學》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한문중, 〈조선전기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著述의 조사연구-대일관계 臚錄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6, 1999
- 한승희, 〈己亥通信使의 儀式改正에 대한 새로운 검토〉, 《韓日關係史研究》 16, 한일관계사학회, 2002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5
- 한태문, 〈甲子 通信使行記 《東槎錄》 연구〉, 《人文論叢》 50, 부산대학교, 1997
- 한태문, 〈《東槎錄》 所載 書簡에 반영된 韓日文士의 교류양상 연구〉, 《韓國文學論叢》 23, 한국문학회, 1998
-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 使行文學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10, 1996
- 한태문, 〈李彦瑱의 문학관과 통신사행에서의 시계인식〉, 《國語國文學》 34, 문창어문학회, 1997

- 한태문, <[해행총재]소재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 한태문, <통신사행록에 반영된 대일 민속관>, 《조선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1995
- 홍선표,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과건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1995
-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1998
- 홍선표, <17·18세기의 한·일간 繪畫交流>, 《考古美術》 143·144, 1979
- 홍선표, <조선후기 한일간 畫蹟의 연구>, 《미술사연구》 11, 1997
- 홍성덕, <17세기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8
- 홍성덕,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1999
- 홍성덕, <조선후기 대일외교사절 문위행 연구>, 《국사관논총》 93, 2000
- 홍성덕, <통신사는 신의의 상징인가 조공의 상징인가>,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998
- 황창윤, <조선통신사인식에 대한 재검토>,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Ronalds P. Toby(박은순 역), <朝鮮通信使와 近世日本의 庶民文化 회화; 민화; 제례재연>, 《동양학》 18,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88
- 仲尾宏, <朝鮮朝日本通信使の意義と日韓の將來>, 《日本學報》, 경상대 일본문화연구소, 1995

【國外論文】

- 藤田明, <江戸時代に於ける朝鮮使節來朝について>, 《歴史地理.朝鮮号》, 1904
- 松田甲, <徳川時代の朝鮮通信使>, 《朝鮮》 122, 1925
- 松田甲, <李朝英祖時代 戊辰信使の一行>, 《朝鮮》 152, 1928

- 松田甲，〈江戸城に於ける朝鮮人の曲馬〉，《朝鮮》176, 1930
- 松田甲，〈日本に名を留めたる李東郭〉，《續日鮮史話》2, 1931
- 多田正和，〈正徳辛卯朝鮮通信使と日本の漢文學〉，《斯文》18-2, 1936
- 三浦叶，〈朝鮮通信使と備前漢文學界〉，《朝鮮文化》148, 1936
- 中村榮孝，〈朝鮮の日本通信使と大坂〉，《朝鮮學報》39.40合併号, 1964
- 内藤雋輔，〈歸化医師泉大官とその系譜 - 附.朝鮮信使迎接日記について〉，《朝鮮學報》48, 1968
- 三宅英利，〈李氏孝宗朝日本通信使考〉，北九州大學文學部《紀要》3-1, 1969
- 吉田宏志，〈李朝の畫員金明國について〉，《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35, 1977
- 長正統，〈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史淵》115, 1978
- 大瀧晴子，〈日光と朝鮮通信使〉，《映像文化協會1979收録》，1979
- 大瀧晴子，〈日光と朝鮮通信使 - 寛永13年の通信使 - 〉，《朝鮮史叢》1, 1979
- 大瀧晴子，〈日光と朝鮮通信使 - 寛永20年の通信使〉，《朝鮮史叢》2, 1979
- 吉田宏志，〈朝鮮通信使の繪畫〉，《映像文化協會編1979收録》，1979
- 李元植，〈朝鮮通信使に隨行した倭學譯官について〉，《朝鮮學報》111, 1984
- 李元植，〈韓國研究所藏朝鮮通信使關連資料について〉，《韓》102, 1986
- 山内長三，〈李聖麟と崔北 - 寛延度通信使隨行畫員について〉，《韓國美術3 李朝美術》，1987
- 山内長三，〈通信使畫員の繪〉，《韓國美術3 李朝美術》講談社, 1987
- 李元植，〈朝鮮通信使の訪日と筆談唱和〉，《韓》110, 1988
- 吉田忠，〈朝鮮通信使の医事問答〉，《研究報告》24, 1988
- 李元植，〈朝鮮通信使と江戸時代の文人たち〉，近畿大學《文學.藝術.文化》1, 1990
- 田代和生，〈朝鮮通信使行列繪卷の研究〉，《朝鮮學報》137, 1990
- 仲尾宏，〈江戸の朝鮮通信使 - 軍役と民衆の接點を中心に - 〉，京都藝術短期大學《瓜生》13, 1991
- 池内敏，〈文藝作品と朝鮮通信使〉，《青丘學術論叢》3, 1993

- 田代和生, 〈渡海譯官使の密貿易〉, 《朝鮮學報》150, 1994
- 米谷均, 〈史料紹介:東大史料編纂所架蔵『日本關係朝鮮史料』〉, 《古文書研究48》, 1998
- 關周一, 〈朝鮮王朝官人の日本觀察〉, 《歴史評論》592, 1999
- 伊川健二, 〈中世後期における外國使節と遣外國使節〉, 《日本歴史》626, 2000
- 西村毬子, 《日本見聞録にみる朝鮮通信使》, 明石書店, 2000
- 伊藤幸司, 〈現存史料からみた日朝外交文書書契〉, 《九州史學》132, 2002
- 仲尾宏 外, 〈朝鮮通信使關係資料目録〉, 《青丘學術論集》21, 2002